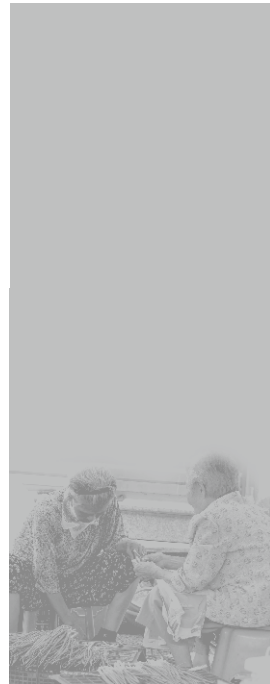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목차

CONTENTS

건축·역사 분야

I 연구개요 007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08
-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009

II 장대B구역(유성시장)과 유성온천의 역사와 문화 011

- 1. 장대동과 유성온천의 연혁 012
- 2. 유성장의 역사와 장대동 017
- 3. 장대동 유성장에서의 독립운동 020
- 4. 봉명동과 유성온천의 역사 024

III 장대B구역의 도시와 건축 029

- 1. 장대B구역의 도시공간과 경관 030
- 2. 장대B구역의 건축현황과 분석 036
- 3. 장대B구역의 주요 건축물 기록 041

민속(구술채록) 분야

장대동 역사 및 변천과정 063

- 1. 지명의 유래 064
- 2. 유성시장 풍속 066
- 3. 장대동·유성시장 내력 070

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시선 079

- 1. 박정선 작가 082
- 2. 시모코가와 쓰요시 작가 084
- 3. 충남대학교 회화과 2학년 학생 협업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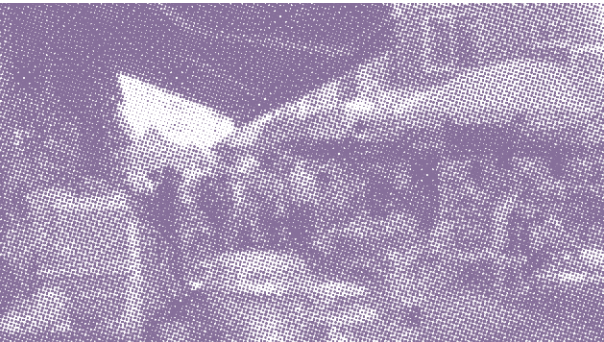


결과보고전 089

부록 109

- 1. 유성 관련 고지도 및 구 지형도 110
- 2. 유성오일장 풍경 및 물품 사진 114

참여 연구진 및 예술가 142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I

연구개요

건축·역사 분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의 낙후된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오래된 삶의 이야기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도, 골목길에 웅기종기 모여있던 작은 주택들도, 그 안의 희노애락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예정지 중 주요 조사대상을 선정해 도시와 건축, 역사와 문화적 자산들을 조사·기록하는 「지역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역리서치 프로젝트는 ‘장대B구역’이다. 과거부터 물건을 사고파는 상설·비상설시장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라, 장대(場垔)로 불렸다. 1970년대 중반 유성시범상가가 조성되고, 2000년대 중반 유성장육을 건축하는 등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장을 찾는 발길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장대B구역’은 인접한 A구역, C구역과 함께 재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장대동에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 연구의 목적

프로젝트의 대상지인 ‘장대B구역’은 유성전통시장과 유성장육 등 대전의 근·현대 상업공간이 변화하고 발전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장대B구역’에 대한 문헌자료와 지도, 사진 등의 기록물을 확보하고, ‘장대B구역’을 구성하는 건축조직과 경관, 그리고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학술조사와 분석을 통한 사진 및 영상기록, 주요 건축물에 대한 도면작성과 3D모델링, 관련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대B구역’의 도시공간을 기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1) 연구의 방향

‘장대B구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역사와 건축자원, 도시공간 구조, 경관 및 경관적 요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조사·기록한다.

1차 조사로 역사자료, 문헌자료 및 사진·영상 자료와 옛 지도류(고지도, 구 지형도 등), 항공사진, 기타 기록물 등 ‘장대B구역’과 관련한 기록물을 확보하고, 현장조사(건축물 실측 및 스케치도면 작도, 현장 기록)를 비롯한 전수조사(건축물 현황 및 경관 기록)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장대B구역’의 역사기록을 분석하고, 도시·건축조직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의 분류·분석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스케치한 도면을 전산 자료로 재구축한다.

3차 조사에서는 전산으로 구축된 도면을 토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3D기록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B구역
(장대동 14-5 일원, 약 97,213㎡)

시간적 범위 :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건축·경관분야)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역사분야)

내용적 범위

- 조사와 기록 : 장대B구역의 역사와 건축 및 경관에 대한 조사·기록
 - 건축·경관 :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장대B구역 건축물 분류 및 주요 건축물(10개소 내외)에 대한 정밀 기록과 3D기록(3개소 내외) 장대B구역의 전경 및 골목에 대한 사진 및 영상 기록
 - 역사조사 : 장대B구역의 도시 형성과정과 역사적 배경 및 주요 역사적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기록물의 수집·정리
- 보고서 작성 : 장대B구역의 역사와 건축(도면·3D) 및 경관기록의 내용이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hwp 형식) 작성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II

장대B구역 (유성시장)과 유성온천의 역사와 문화

건축·역사 분야

-
1. 장대동과 유성온천의 연혁
 2. 유성장의 역사와 장대동
 3. 장대동 유성장에서의 독립운동
 4. 봉명동과 유성온천의 역사

1. 장대동과 유성온천의 연혁

장대B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場垜洞 14-5번지 일원, 유성온천은 봉명동鳳鳴洞 일원에 조성된 온천지구이다.

장대동은 유성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봉명동은 장대동의 동남쪽에 인접해 있다. 장대동은 남쪽으로는 계룡산 삼재고개에서 발원하여 갑천으로 합류하는 유성천이, 북쪽으로는 반석동과 지족동에서 발원해서 유성천으로 합류하는 반석천이 흐르고 있다.

봉명동은 북쪽으로는 유성천, 동쪽으로는 갑천이 흐르는 지역으로 온천이 솟아 온천지구가 있는 곳이다. 유성儒城이라는 지명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며, 장대동과 봉명동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근현대를 거치면서 유성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

1) 삼국시대의 유성

유성儒城이라는 지명은 일찍부터 확인된다.

비풍군比豐郡은 본래 백제 우술군雨述郡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의 회덕군懷德郡으로 영현이 둘이다. 유성현儒城縣은 본래 백제 노사지현奴斯只縣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대로 쓴다. 적오현赤烏縣은 본래 백제 소비포현所比浦縣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의 덕진현德津縣이다. 『삼국사기』36, 잡지 5, 지리 3, 웅주조

『삼국사기』에 의하면 회덕군이 백제의 우술군이었고, 우술군에는 2개의 영현이 있었는데, 노사지현과 소비포현이었다. 이 가운데, 노사지현이 신라 경덕왕대에 이르러 유성현儒城縣으로 고쳐졌다. 『삼국사기』를 통해서, ‘유성’이라는 지명은 신라 경덕왕

대 이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 유성현의 범위는 지금과 좀 다르다. 우술군이 현재 대전 대덕구와 동구 일원, 노사지현이 현 유성 일원, 소비포현이 세종시 금남면 감성리 일대에서 유성구 일부 지역까지로 비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유성지역은 노사지현과 소비포현 일부를 포함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신라 경덕왕대 이전 유성의 모습은 원삼국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의 주거지를 통해 확인된다. 원삼국시대에는 지금의 유성 장대동과 용계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고,¹ 백제 시대에는 용계동유적에서 1~2km 이내의 복용동 일대에 대규모 취락유적이 밀집하였다. 복용동 당산마을 유적에서는 ‘뽕’자형 주거지와 ‘ㅁ’자형 주거지를 포함한 42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복용동 새터말유적에서는 61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유성지역은 원삼국시대부터 백제시대에 걸쳐서 주요 거주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아울러, 유성지역에서는 백제 한성시대부터 사비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고분도 발견되었다. 한성시대 고분으로는 구성동, 용산동, 노은동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구성동유적에서는 4세기 중엽의 한성백제 토기양식이 확인되고, 용산동유적³에서도 전형적인 한성백제 토기문화가 반영된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로 부터 4세기 유성지역이 백제 중앙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산 수당리, 세종시 나성동, 공주 수촌리, 청주 신봉동과 비교할 때, 유성지역 고분군은 입

-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 가수원동·도안동·용계동·상대동 원골유적(고찰)』, 2011, p.81
- 강종원, 『백제시대 대전지역 재지사의 성격과 郡·城(縣) 편제』, 『역사와 담론』, 103, 호서사학회, p.13
- 충남대학교박물관, 『용산동』, 2002, p.102

지적이나 위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성지역에 유력한 세력이 부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이후 백제 사비시대(538~660)에는 유성지역에 석실묘가 조성되었다. 궁동유적, 원신흥동 달레기유적, 용계동유적, 복용동유적, 상대동 중동골유적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적은 갑천 서편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원삼국시대 또는 백제시대의 주거지 밀집지역과 중첩되고 있다. 유성지역 백제의 석실묘는 크기가 비교적 작고 유물의 출토량이 적어 피장자의 위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동 중동골 양촌유적에서 금동이식, 은제 대금구 등이 출토되고, 원신흥동 달레기유적 석곽묘에서는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위계가 대전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⁵

원삼국시대부터 유성지역에는 거주지가 조성되었으며, 백제 한성시대부터 사비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재지세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유성지역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백제 웅진시대(475~538) 이후 대전의 정치적·군사적 입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을 7월에 사정성을 쌓고 한솔(扞率) 비타에게 지키게 하였다.

『삼국사기』26, 동성왕 20년

겨울 10월에 웅진성을 수리하고 사정책을 세웠다.

『삼국사기』26, 성왕 4년

『삼국사기』에서는 백제 동성왕 20년에 사정성을 쌓고 한솔 비타에게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성왕 4년에는 사정책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때, 사정성은 지금의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비정된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도 한성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대전은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대전의 월평동유적과 월평동산성은 그 대표적인 유적이다. 월평동유적에서는 목책①과 호①의 축조 양상⁶ 및 고구려 계통의 유물 발견 등을 통해, 475년

- 강종원, 『백제시대 대전지역 재지사의 성격과 郡·城(縣) 편제』, pp.14~15
- 강종원, 『백제시대 대전지역 재지사의 성격과 郡·城(縣) 편제』, pp.15~16 사비시대 이들 지역 재지세력의 부상 배경으로 방어상 거점의 역할을 주목하기도 하였음(서현주, 『고대 갑천유적 백제 사비기 고분의 분포와 역사적 의미』, 『백제연구』63, 201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90).
- 충청문화재연구원, 『대전 월평동산성』, 2003, p.156

이후 고구려 세력이 이 지역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 그러나 이후 조성된 성벽을 통해서,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동산성의 축조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웅진시대 사정성과 월평동산성은 대전에 백제 중앙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백제 웅진시대 이후 대전의 군사적 요충지지역들은 회덕지역인 우술군을 중심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술군의 영현으로 노사지현과 소비포현이 보인다. 원삼국시대부터 백제 사비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성지역에 거주지가 밀집하였던 것과 달리, 회덕지역을 중심으로 편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백제 웅진시대 이후 회덕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전지역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⁸

유성지역인 노사지현은 이후 백제부흥운동기 국권회복의 중심지로서 등장하면서 입지가 강조된다.

8월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내사지성(內斯只城)에 모여 진을 치고 나쁜 짓들을 하니, 흡순(歙純) 등 장군 19명을 보내어 격파하게 하였다.

『삼국사기』6, 신라 문무왕 2년

『대동지지』(1860)에는 ‘노사지(奴斯只, 노일작내奴一作內)라 하여 노사지를 내사지라고도 칭하고 있다. 곧 노사지성과 내사지성은 같은 지명이라고 하겠다. 내사지성 즉 노사지성은 앞서 노사지현의 중심 치소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노사지성은 대전의 구성동산성⁹ 혹은 월평동산성¹⁰으로 비정되고 있다. 신라 문무왕 2년(662) 8월에 백제의 부흥운동군이 내사지성에 모인 것은, 대전 유성지역이 웅진과 보은, 옥천방면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기 때문이다. 백제부흥군은 대전 유성지역을 점령

⁷ 최중택, 『호서지역 고구려 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백제연구』63, 201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20 ; 김길식, 「대전 월평산성 출토유물과 점유세력의 변화」, 『백제문화』57, 201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90 ; 공석구, 「대전 월평동 방어시설은 고구려가 축조하였는가?」, 『대전 역사의 쟁점과 사실』(상), 2019.

⁸ 강종원, 『백제시대 대전지역 재지사의 성격과 郡·城(縣) 편제』, p.30

⁹ 성주탁, 「대전부근 고대 성지고」, 『백제연구』34, 197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p.10~11 ; 심정보,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14, 198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172

¹⁰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의 축성 주체와 위상」, 『백제연구』63, 201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59 ; 강종원, 『백제시대 대전지역 재지사의 성격과 郡·城(縣) 편제』, pp.37~38

하여, 웅진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와 신라 본군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유성지역은 원삼국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 대전의 주요 거주지로서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백제부흥운동기를 거쳐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시대의 유성

고려시대 유성은 유성현과 진잠현으로 통일신라시대 군현의 이름 그대로 사용했으며 공주목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유성과 관련해서 『고려사』 기록이 주목된다.

유성현은 본래 노사지현으로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비풍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에서는 옛 이름 그대로 내속하였다. 온천溫泉이 있다.

『고려사』56, 지10, 지리1, 양광도 공주 유성현조

그런데 고려시대 유성현은 어느 시기 그 치소의 위치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유성古儒城, 유성현의 동쪽 4리에 있다. 광도원廣道院 옆에 객사, 향교, 창고 터가 아직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7, 공주목 고적조

고유성古儒城, 유성현의 동쪽에 그 터가 아직도 있다.

『여지도서』, 충청도 공주목 고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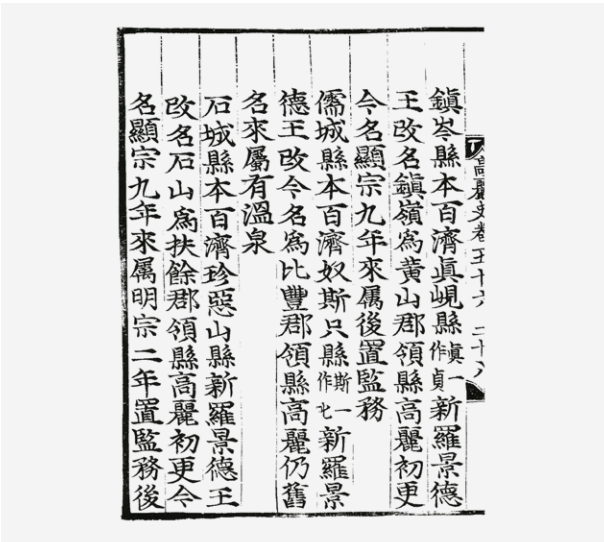
유성儒城은 동쪽 54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노사지인데 노峴은 어디에는 내內로도 되어 있다. 신라 경덕왕 16년 유성으로 고쳐 비풍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본현의 옛 터가 폐현의 동쪽 4리 광도원 곁에 있다.

『대동지지』5, 충청도 공주 고읍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60년대), 『대동지지』(1860년대)에서 고유성古儒城이 유성현의 동쪽 4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유성현의 서쪽 4리에 옛 유성현의 치소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료의 편찬 시기를 고려할 때, 유성현의 치소 이동이 조선시대에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고려시대에 공주목의 속현에 대한 개편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주목 소속의 유성현의 치소 변화도 고려시대에 이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고유성은 광도원廣道院 인근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 상대동 중동굴·양촌 유적의 발굴 결과 대형건물터(SD) 1·2호, 건물지 28동, 연못 1기, 도로망 등이 조사된 것이 주목된다. 여기서 ‘口성현관口城縣官’명 기와 2점과 ‘雨述郡’명 기와 1점이 발견되었다. 비록 앞의 한 글자가 유실되었지만, 전체적인 명문은 ‘유성현관’이었을 것으로 본다.¹² 아울러, ‘대장승大底僧’, ‘언남무삼만言南無三滿’ 등의 불교와 관련된 명문이 확인된다. ‘대장승’은 기와를 만든 사람이 승려라는 말일 것이고, ‘남무삼만’은 ‘남부삼보南無三寶’와 같이 삼보(불교)에 귀의한다는 뜻과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고려사』56, 지10, 지리1, 양광도 공주 유성현조

이러한 유적은, 앞서 광도원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된다.¹³ 대전 상대동 유적의 발굴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이 옛 유성현의 치소일 가능성이 높다.

유성현의 치소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명종 6년(1174)에 공주 명학소에서 발발한 망이·망소이의 난이다. 명학소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유성현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고 하여, 현 대전 탄방동 지역으로 비정된다.

¹¹ 김갑동, 「고려시대 유성현의 지방세력과 상대동 유적」, 『한국중세사연구』31, 2011, 한국중세사학회, p.57

¹² 문경호, 「고려시대 유성현과 대전 상대동 유적」, 『한국중세사연구』36, 2013, 한국중세사학회, p.189

¹³ 김갑동, 「고려시대 유성현의 지방세력과 상대동 유적」, pp.63~64

망이와 망소이는 이후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는데, 탄방동 지역에서 공주를 가려면 유성을 거쳐야 했다. 당시 상대동 지역에는 유성현의 관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유성현 관아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공주로 진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치소를 서쪽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¹⁴

아울러, 유성현에 온천이 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전에 온천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신라 신문왕대, 『삼국사기』에서 성덕왕 11년(712)에 온천에 행차하였다는 것이 확인될 뿐,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이후 『고려사』에서는 온천과 관련한 기록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황해도 평산군에 위치한 평주 온천에 행차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고려사』지리지에서는 군·현의 온천에 대해서도 전하여, 충청도 지역에서는 온수군(온양)과 유성현의 온천을 확인할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유성

조선시대 유성은 태종 13년(1413년) 군현제의 개편에 따라 공주목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은 1413년 전국을 8도(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함경·평안도)로 나누어 각각 관찰사를 파견하고 그 밑에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을 두었다. 당시 대전지역은 회덕현과 진잠현, 그리고 공주목 직할直轄인 유성현과 덕진현, 그리고 청주목 직할인 주안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시대 유성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온천과 관련한 기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충청도 유성 온정溫泉에 거둥하니,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돈화문 밖에서 지송祗送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 9월 11일

온천溫泉 유성현 동쪽 5리 독기우을獨于乙에 있는데, 집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9, 충청도 공주목

온천溫泉 유성현 동쪽 3리에 있다. 우리 태조가 계룡산에 대궐터를 잡으려고 할 때와 태종이 암실에서 강무講武할 때, 이곳에서 묵목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7, 공주

¹⁴ 김갑동, 「고려시대 유성현의 지방세력과 상대동 유적」, pp.57~58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보면,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유성에 온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유성현 온천을 찾아 목욕했다는 사실이 특이한데, 위치는 유성현의 동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앞서 『고려사』지리지를 통해서는 유성현 온천의 위치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고유성(古儒城) 즉 유성현의 치소가 유성현의 동쪽 4리에 위치했다고 하였으므로, 온천은 옛 유성현 치소에서 동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조선 태조의 유성현 온천행은 계룡산에 대궐터를 잡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행된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1392년 7월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수도로 하였다가, 1개월 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 것을 명하고, 궁실과 성곽 및 관아의 조성을 서둘렀다. 그러나 그 후 권중화(1322~1408)의 「계룡산 도읍도」를 보고, 1393년 2월 무학대사와 군신을 이끌고 계룡산을 답사하고 이곳에서 5일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한다. 태조의 온천행은 이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계룡산에 새로운 수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태조 1393년 2월부터 10개월 간이나 지속되었다. 하지만, 하륜 등의 반대로 결국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¹⁵ 아울러, 태종 이방원은 13년(1413) 가을 임실로 강무(수렵)를 떠났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때 유성현의 온천에 들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7, 공주

¹⁵ 김경수, 「조선시대와 유성」, 『유성구지』 1권, 1998, 대정광역시 유성구, pp.105~106

한편, 『사가집四佳集』(서거정, 1420~1489), 『충암집沖庵集』(김정, 1486~1521), 『죽당집竹堂集』(신유, 1610~~1665), 『송자대전宋子大畵』(송시열, 1607~1689) 등 조선시대의 문집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성온천을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가집』에는 유성온천을 가리켜 공주온정公州溫井, 유성온실儒城溫室로 기록하여 온천의 명칭이 다양하게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유성온천에 온천시설이 갖춰진 ‘집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현손玄孫인 송문흙(1710~1752)이 아들인 송치연(1736~1783)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신처가 유성욕소儒城浴所로 적혀 있다. 이를 통해서도 유성온천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4) 근대의 유성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은 1895년과 1896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895년 기존의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337개 군縣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도는 충주부·홍주부·공주부로 편제되었으며, 유성현과 진잠현, 회덕현은 공주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896년 아관파천 후 기존의 23부제는 폐지되고 전국이 13도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충청도는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로 분리되었고, 충청남도는 37개 군으로 재편되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회덕현은 회덕군, 진잠현은 진잠군이 되었으며, 장대동과 봉명동은 공주군 현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행정구역 개편은 유성현의 영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시대 공주목에 속해있던 구죽면·탄동면·산내면·천내면·유등천면·현내면 중 현내면을 제외한 지역이 회덕군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은 진잠군·회덕군과 공주군의 현내면 지역으로 재편되었으며, 장대동과 봉명동은 공주군에 속하게 되었다.¹⁷

일제는 1910년 항일강제병탄 후에도 이전의 행정구역을 유지했으나 1914년 군면폐합郡面廢合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전군大田郡이 신설되었다. 대전군은 회덕군의 13개 면과 진잠군의 5개 면, 그리고 현

내면을 포함한 공주군의 일부를 통합해 12개 면(구죽면九則面·가성면杞城面·내남면內南面·대전大田面·동면東面·북면北面·산내면山內面·외남外南面·유성면儒城面·유천면柳川面·진잠면鎭岑面·탄동면炭洞面)을 관할하게 되었다.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유성면이 신설되었으며, 14개 리(갑동리甲洞里·구성리九城里·구암리九岩里·궁동리弓洞里·노은리老隱里·덕명리德明里·북룡리伏龍里·봉명리鳳鳴里·상대리上岱里·신흥리新興里·어은리魚隱里·장대리場岱里·죽동리竹洞里·지족리知足里)가 유성면에 속하게 되었다. 대전의 행정구역은 대체로 회덕현(군)·진잠현(군)·공주목(군) 직할지역인 현내면으로 관할권이 나뉘어져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현재의 대전광역시 영역이 단일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다.¹⁸ 현재 대전광역시의 영역이 당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전은 1905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영남과 호남,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대전은 철도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근대도시로 변화했다. 대전에 도시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초 대전은 모든 면에서 도청소재인 공주公州를 압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31년 현재 대전역 주변의 인동·원동·중동·정동일대의 대전면이 대전읍大田邑으로 승격되고, 대전의 인구는 공주와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다. 대전은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교통의 편리와 행정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1932년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대전은 충남도청이 이전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충남의 중심지가 되었고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大田府로 승격되었다.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함에 따라 대전부 이외의 지역은 대덕군大德郡이 되었으며, 유성면도 대덕군에 속하게 되었다.

2. 유성장의 역사와 장대동

장대동은 조선시대 공주목 현내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잠리東岑里·동자동東子洞·중봉리中峯里·구암리九岩里 등을 편입해 장대리場岱里가 되었다. 장대리의 장대場 또는 유성장이 열렸다는 의미였다고 한다.¹⁹장대B구역인 장대동 일원에서는 매월 4일과 9일에 오일장이 열린다. 오일장은 지역산물의 집산지였으며 교역의 중심지였다. 오일장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뿐만 아니라 정보를 주고 받는 장소였다. 따라서 오일장은 하나의 경제권과 문화권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시장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그러나 장시로 알려진 정기시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생겨난 것은 조선후기였다. 조선후기 생산력이 증대되고 농업·상업·수공업 등이 발달하면서 18세기에는 전국에 1,000곳이 넘는 장시가 생겨났다. 장시는 교통의 요지에 생겼으며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장시들은 서로 연결되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이 생기기도 했다. 장대동의 유성장은 조선시대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장시였다.

유성에서는 삼국시대 아지성(阿只城; 현재 월평동)에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장대동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장이 열렸다고 한다.²⁰ 문헌상으로는 조선시대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를 통해서 유성장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는 홍봉한洪鳳漢·채제공蔡濟恭 등이 1770년(영조 46년) 왕명으로 문물제도를 분류하고 정리한 백과사전식 책이며, 『증보동국문헌비고』는 1782년(영조 58년) 이만운李萬運 등이 『동국문헌비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해 편찬한 것이다. 조선시대 회덕현과 진잠현, 그리

고 대전지역 중 공주와 청주목에 속했던 곳의 장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동국문헌비고	증보동국문헌비고
회덕현	신탄장(新灘場) 3일·8일	신탄장(新灘場) 3일·8일 양천장(楊川場) 5일·10일
진잠현	읍내장(邑內場) 3일·8일	읍내장(邑內場) 3일·8일
공주목	유성장(儒城場) 5일·10일	유성장(儒城場) 5일·10일
	대전장(大田場) 2일·7일	대전장(大田場) 2일·7일
청주목	주안장(周岸場) 5일·10일	주안장(周岸場) 5일·10일

대전의 장시²¹

『동국문헌비고』를 통해 보면, 조선후기 대전에서는 5개의 장시가 있었다. 이후 양천장이 개설되면서 6개의 장시가 개설되었고, 장대동의 유성장은 5일과 10일에 열렸다. 19세기 편찬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와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도 유성장은 5일과 10일에 열렸던 것을 보면 유성장은 계속해서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²

유성장의 거래품목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인근 회덕의 장사에서 잡곡·건어·포백·연초·면화 등이 거래되었던 것을 보면, 유성장에서도 이와 같은 품목들이 거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성장은 내륙에 있었던 장시였지만 금강과 갑천의 수로를 통해 해산물이 거래되었던 시장으로도 번성했다고 한다.²³ 이처럼 유성장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강을 이용한 수로교통이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여 노령산

¹⁶ 대전시립박물관 편, 『유성온천과 대전』, 2021, pp.18~35

¹⁷ 송인협, 『지리지로 본 대전의 행정구역 변천』, 『대전문화』17, 대전광역시, 2008, p.211

¹⁸ 송인협, 『일제강점기 대전지방의 행정구역 변천』, 『대전문화』18, 대전광역시, 2009, p.211

¹⁹ 최문희 편,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유성구문화원, 2000, p.183

²⁰ 최문희, 편,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p.186

²¹ 박 범, 『조선시대 대전의 상공업』, 『대전의 상공업사』,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pp.183~186

²² 박 범, 『조선시대 대전의 상공업』, p.190, p.198

²³ 최문희 편,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p.186

맥과 차령산맥 사이의 지류들을 모아 대전을 거쳐 부여 근처에서 큰 강폭을 유지하면서 서해로 흘러든다. 그 유역은 충청남북도의 약 절반과 전라북도의 1/4을 차지한다. 총길이 400km로 남한에서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강으로서 서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길 역할을 하였다.

금강은 하류와 중류 사이의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평저선平底船으로 부강(현, 세종시 부강면)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금강의 물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은 청주와 공주를 포함하는 거대한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조선의 장시는 교통중심지에서 형성되었는데, 유성장은 갑천과 금강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형성된 시장이었다. 특히 유성은 조선시대 진잠과 공주, 회덕과 신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유성장은 번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전의 시장은 1905년 경부선과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개통되고, 신탄진역(1905년), 대전역(1905년), 서대전역(1914년)이 세워지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구축으로 대전은 충남의 거점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다. 대전은 철도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상업과 산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근대도시로 급변하게 된 것이다.

대전역의 이용객수는 부설초기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07년(47,178명), 1912년(140,357명), 1927년(479,166명), 1933년(514,681명), 1938년(1,005,873명)으로 빠르게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 1938년 대전의 인구가 41,980명이었는데 대전역 이용객수가 1,005,873명 이었다는 것은 대전 인구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대전역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부선과 호남선이 개통되고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수로교통을 이용하던 전통시장들은 상권을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전의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방별	개시수	농산물	수산물	직물류	축류	잡품	합계	비중
대전	60	83,500	38,500	58,000	25,000	55,000	360,000	91.8
유성	60	3,990	1,958	1,885	10,625	1,941	20,400	5.2
신탄진	60	1,450	700	700	2,800	350	7,000	1.8
흑석	60	4,448	850	1,300	1,200	700	8,431	2.1
탑산	60	300	150	70	800	1,000	2,320	0.6
지명	60	200	50	-	-	100	350	0.1
진잠	32	100	-	-	-	30	130	0.0
합계	392	191,800	41,558	61,025	39,256	58,721	392,360	100

대전의 시장거래량(1914~1916 평균)²⁴

위 표는 일제강점기 초기 대전의 정기시장의 거래량이다. 자료를 보면 대전에는 대전大田·유성儒城·신탄진新灘津·흑석黑石·탑산塔山·지명芝莚·진잠鎭岑에 시장이 있었다. 유성과 신탄진, 그리고 진잠의 장시는 조선후기부터 개설되었던 오일장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 초기 대전의 시장은 대전장의 비중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개통되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전면大田面이 대전지역의 중심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유성장이다. 유성장은 전체적인 비중은 낮지만 대전장 다음으로 높은 비중(6.8%)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후기 비슷한 규모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신탄장(2.3%)보다 3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성장이 이러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유성이 대전면에서 도청소재지인 공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이었다는 점과 유성온천 개발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공주에서 유성장(장대동)을 거쳐 회덕과 진잠현에 이르는 유성로儒城路가 개설되어 있었다. 유성로는 현재 공주-마암-공암-사현(삼재개개)-유성-회덕(또는 진잠)으로 연결되는 도로였다. 유성로는 공주에서 회덕과 진잠을 잇는 관도官道로써 뿐만 아니라 공주장(1일·6일 개시)과 유성장(5일·10일 개시), 그리고 진잠의 읍내장(3일·8일 개시) 등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²⁵ 또한 조선시대 유성장에서 대전역이 있는 대전면 방향으로는 도로가 없었다. 그런데 경부선이 개통되고 대전역이 설치되면서 유성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1913년 10월 2등 도로인 공주가도公州街道가 새롭게 개통되

었다.²⁶ 유성장과 장대동은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전군과 도청소재인 공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공주가도의 개통은 유성온천과도 관계가 있었다. 유성온천은 한말 일제강점 초기 대전에 들어온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군청소재지인 대전면에서 유성온천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제강점기 발행된 유성호텔 관광엽서에서 “대전에서 20분”이라는 문구를 넣어 유성온천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장대동은 유성면의 면소재지였다. 따라서 주요기관들은 장대동에 설치되었다. 유성면사무소와 현병주재소가 1914년 설치되었으며, 유성금융조합도 1922년 설립되었다.²⁷ 교육기관으로는 유성공립보통학교(현 유성초등학교)가 1927년 개교했다. 유성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면서 유성구 지역에서는 1931년 현재 구죽공립보통학교(1930년 개교)·진잠공립보통학교(1914년 개교)·유성공립보통학교가 한국인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유성공립보통학교는 유성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보통학교였으며, 1931년 현재 학생수는 278명이었다.²⁸

주목되는 점은 일본인 교육기관인 공립소학교의 설립이다. 유성에는 1921년 봉명동에 유성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유성공립보통학교가 1927년에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시점에 설립된 것이다. 1931년 현재 대전지역 일본인 초등교육기관은 대전공립소학교(1906년 개교), 신탄진공립소학교(1911년 개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유성공립소학교는 대전에서 3번째로 설립된 일본인 초등교육기관이었다. 유성공립소학교는 학생수가 26명에 지나지 않았다(1931년 현재).²⁹ 그럼에도 소학교를 설립해 일본인 학생들을 교육했다. 일본인 학생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겠으나 유성지역의 일본인들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장대동은 유성면의 면소재지로서 행정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으며, 유성온천과 유성장은 경제중심지 기능을 담당했다.

²⁶ 湖南日報社,『忠清南道發展史』,1932, p.48

²⁷ 『조선총독부관보』,1914.8.27 ;「유성금융조합설립」『동아일보』1922.2.2.

²⁸ 湖南日報社,『忠清南道發展史』,1932, p.87

²⁹ 湖南日報社,『忠清南道發展史』,1932, p.87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발표될때까지는 일제의 관제 및 행정기구가 그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1949년까지는 대전부와 대전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제가 발효된 이후에도 장대동은 대덕군 유성면 소재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갔다. 유성면은 인구증가에 따라 1973년 유성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에는 유성읍의 일부가 중구에 편입되고, 유성에는 유성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유성출장소는 1984년 대전시 직할출장소로 승격되면서 중구 소속이었던 봉명동·구암동·덕명동·원신흥동·상대동·복용동·장대동·갑동·노은동·지족동·죽동·궁동·어은동·구성동·문지동·전민동·원촌동·신성동·가정동·도룡동·장동·방현동·화암동·덕진동·하기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 대전시 서구가 신설됨에 따라 유성출장소 지역은 서구에 편입되었다.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가 되면서 유성구가 신설되었고, 1995년 대전직할시가 대전광역시로 변경되면서 장대동과 봉명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속하게 되었다.³⁰

²⁴ 田中市之助,『朝鮮大田發展誌』,1917, p.69

『조선대전발전지』에 수록된 대전의 시장거래량은 품목별, 시장별 합계에 오류가 있어 올바른 통계를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하였음

²⁵ 대전광역시,『대전의 산천과 길』Ⅱ, 2010, p.453

³⁰ 최근목,『유성지방의 연혁』,『유성구지』1권, 1998, 56~58쪽.

3. 장대동 유성장에서의 독립운동

1) 을미의병의 효시 유성의병

유성장터는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병義兵이 봉기한 장소이다. 의병이란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국가의 명령이나 소집없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우는 민군民軍이다. 한말 의병은 1894년 일제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갑오변란甲午變亂 이후 봉기한 갑오의병甲午義兵부터 시작되어 1910년 한일강제병탄 전후까지 20여 년간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한말 의병전쟁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이후 전개된 을미의병乙未義兵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장대동 유성장터는 최초의 을미의병인 유성의병이 봉기한 곳이다.



문석봉 의병장³¹

³¹ 독립기념관

유성의병장은 경북 현풍군(현,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동리) 출신의 문석봉文錫鳳이다. 문석봉의 자는 이필而弼, 호는 의산義山이다. 그는 32세 때인 1882년 관직에 나아가 전라도지역의 세곡을 조운선으로 서울까지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세곡을 싣고 목포-무안 사이를 지날 때 전라도지역의 기근을 목격하고 곡식을 기근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은거했다. 이후 1893년 5월 별시 무과에 급제해 경북궁 5위장에 특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진잠현감鎭岑縣監에 제수되어 유성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문석봉은 1894년 양호소모사兩湖召募使가 되어 공주감영에서 근무했으며, 진잠·은진·진산·여산·보은 등 충청남북도에서 봉기한 농민군 진압에 공을 세웠다. 문석봉이 농민군 진압에 공을 세우자 연산을 비롯한 6개 지역의 주민들이 진잠에 ‘양호소모사문공석봉명찰선정비兩湖召募使文公錫鳳明察善政碑’를 세워 문석봉을 기리기도 했다. 문석봉의 이러한 활동은 경상도 출신임에도 유성에서 의병을 봉기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유성의병의 봉기 원인은 을미사변이다. 1895년 8월 20일 일본 공사의 지시에 따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해 왕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후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다. 문석봉은 을미사변을 ‘국치(國恥)’라고 여겼으며 ‘천고千古에 없는 강상綱常의 대변大變’이라고 통분했다. 따라서 신하된 도리로서 원수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의리라고 생각했다.³² 문석봉은 을미사변 직후 서울로 올라가 민영환閔泳煥 등 여러 인물들을 만난 후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봉기할 것을 결심했다. 문석봉은 진잠과 회덕에 거주하던 신응조申應朝와 송근수宋近洙에게 의병봉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1895년 9월 18일(양력 11월 4일) 유성의

³² 김상기, 『한말 의병연구』, 일조각, 1997, p.177

장대(場垓, 현재 장대동 장터)에서 유성의병을 일으켰다.

문석봉은 당시 “국모조변國母遭變 후에 5백년 식록食祿을 받은 교목세신喬木世臣이 백천이 아니건마는 어찌 한두 명의 동지도 없단 말인가. 한달을 기다려도 한 사람도 창기하는 자 없어 (중략) 사람이 한번 죽을 것을 판단하기는 진실로 어려우니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마음속에 ‘사자死字를 결심하고 의심이 없는 연후에 처자와 영결하고 기신起身하였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³³



유성의병 사적비(장대동)

유성의병은 대장에 문석봉, 선봉先鋒에 김문주金文柱, 중군中軍에 오형덕吳亨德, 군항軍餉에 송도순宋道淳 등으로 지휘부를 구성했다. 김문주는 공주출신으로 문석봉과는 소모군때부터 참모사로 참여했으며, 오형덕도 중군장으로 참여했던 이였다. 송도순은 송준길의 10대손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이조참판을 역임한 후 낙향해 있던 중 유성의병에 참여했다.³⁴

문석봉은 지휘부를 구성한 후 다음과 같은 통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했다.

통유通諭할 일은, 성모聖母께서 해를 입으신 것은 실로 천고에 없는 대변입니다. 일찍이 복수를 하지 않고 차마 이 적들과 어

³³ 김상기, 『한말 의병연구』, p.170

³⁴ 김상기, 『한말 의병연구』, pp.170~171

찌 한 하늘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욕되게 사는 것보다 영광되게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나라 누구인들 신하가 아니며 누가 복수를 원하지 않으리오. 같이 일어나 대의로서 흉당을 멸망시키고 사직社稷을 건지는 것이 매우 다행이겠습니까.³⁵

유성의병은 공격의 목표를 공주부 관아로 잡았다. 공주관아를 선점하여 무기의 열세를 ‘지리의 이점’으로 메우고자 한 것이다. 유성의병은 9월 18일 유성장터에서 부대를 편성한 후 무기를 획득하기 위하여 회덕현을 급습했다. 회덕현의 무기고를 공격한 일자를 알 수는 없으나 10월 20일(양력 12월 6일) 탈취한 무기로 무장한 300여 명의 의병이 유성 장대리로 다시 진군하였다.

유성의병은 유성장터에서 의병을 모아 다음 날(10월 21일) 오전에 진잠으로 들어가 군수 이세경李世卿을 만났다. 그러나 이세경은 의병의 동태를 관찰사에게 보고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유성의병은 진잠에 입성한 지 일주일 후인 10월 28일 공암을 거쳐 공주를 향해 진격하였다. 관찰사 이종원李鍾元은 전 중군 백낙완白樂流과 이인 찰방 구완희具完禧에게 각각 군사 100명씩을 이끌고 가 유성의병에 대응케 하였다. 유성의병은 공주에서 출병한 관군과 공주 와야동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고 말았다.³⁶ 문석봉은 패산 후 중군 오형덕 등과 함께 경상도 고령 초계 등지에서 재봉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1895년 12월 체포되어 대구부에 구금되었다. 문석봉은 1896년 봄 파옥하여 오형덕 등과 원주 등지에서 재봉기를 추진했으나 1896년 11월 병사하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유성의병은 을미사변 후 전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을미의병이다. 의병장은 경북 출신의 문석봉이 주도했지만 병사층은 대부분이 회덕·진잠을 중심으로 한 일반 백성들이었다. 문석봉은 을미사변 후 고향인 경북에서 봉기하지 않고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것은 유성을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이 일제 침략에 맞서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과 민중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민들의 항일의식과 지원이 유성의병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성장터에서 봉기한 유성의병은 최초의 을미의병으로 을미사변·단발령·변복령 등이 원인이 되어 전국에서 봉기한 을미의병의 도화

³⁵ 김상기, 『한말 의병연구』, p.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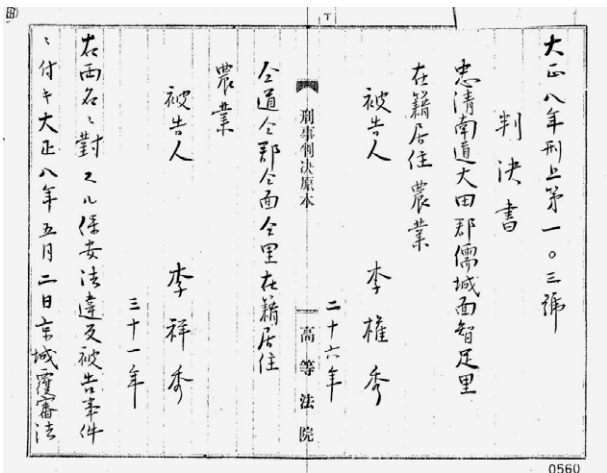
³⁶ 김상기, 『한말 의병연구』, p.173

선導火線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대전 지역민들의 항일의식을 보여주는 의병이었다.

2) 유성장터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작되었다. 3.1운동은 1918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빠르게 변한 국제정세와 191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과 탄압에 저항해 일어난 계획된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했고, 독립운동의 주체가 대중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이끌어 냈고,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독립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3.1운동은 대전지역에서도 전개되었으며, 대표적인 만세운동이 장대동 유성장터에서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대전지역에서도 인동·유성·유천·가수원·치마(갈마동) 등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장대동 유성장터에서는 1919년 3월 16일, 3월 31일, 4월 1일 3차례에 걸쳐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1운동은 운동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터에서 봉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성장터 만세운동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수 이권수 판결문(경성고등법원)

유성장터에서는 1919년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해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장날을 이용해 만세운동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고 헌병을 출동시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성장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00여 명은 시장에 집결한 후 독

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배포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했다.³⁷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는 유성면 지족리(현재 지족동) 출신의 이상수李祥秀·이권수李權秀였다. 이상수는 지족리에서 지족서당智足書堂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한학을 가르치던 중 1919년 2월 하순 천도교 대표인 최린崔麟의 연락을 받고 이권수를 상경시켰고, 이권수는 최린으로부터 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권유를 받고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를 받아 귀향했다고 한다.³⁸

이상수와 이권수는 주민들에게 독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족리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신들이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게양해 두고, 장날을 이용해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7매의 태극기를 제작했다. 이상수와 이권수는 3월 16일 오후 1시, 유성장터에서 조선은 독립할 것으로 기쁜일이니 만세를 부르자고 연설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했다.³⁹ 이들은 제작한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만세운동을 이끌었으나 일제 헌병에게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구체적인 신상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홍병두(洪秉斗)가 주목된다. 홍병두의 형사사건부와 판결문을 보면, 그는 1884년생으로 지족리 출신이었다.⁴⁰ 지족서당을 운영하며 유성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상수와는 나이가 같다. 이를 통해 보면 지족서당에서 수학하던 학생들과 지족리 주민들이 유성장터 만세운동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홍병두는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해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3월 16일 유성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대전지역 최초의 3.1운동으로 평가 받는다.⁴¹ 이처럼 유성장터 3.1운동은 대전지역 3.1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성장터에서는 3월 31일에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유성장터에 집결한 200여 명의 군중들은 무력진압을 시도하는 일제헌

³⁷ 김진호, 『충남지역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55

³⁸ 박결순, 「대전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p.55

³⁹ 김진호, 『충남지역 3.1운동 연구』 55쪽; 박결순, 「대전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p.54

⁴⁰ 「홍병두 판결문」(1920.7.8, 경성고등법원) ; 「홍병두 형사사건부(1919.4.4, 대전지검 공주지청」 ; 박결순, 「대전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p.55

⁴¹ 박결순, 「대전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담론』94, 호서사학회, 2020.

병에게 투석전을 벌이며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1명이 부상을 당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던 군중들도 부상을 입었다.

유성장터의 만세운동은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전개되었다. 4월 1일 만세운동은 주민 70여 명이 낮과 가래를 가지고 유성헌병주재소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3.1운동의 전개과정을 보면, 만세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제의 헌병주재소를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성의병 사적비(장대동)

그런데 4월 1일 유성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헌병주재소를 공격목표로 정하고 전개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전날 전개된 만세운동을 일제가 강경하게 대응한 것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⁴² 또한 유성에는 1914년부터 헌병주재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1운동 당시 대전에는 신탄진·산내·기성·유성에 헌병주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성헌병주재소는 유성면 장대리(현 장대동)에 설치되어 있었다.⁴³ 따라서 유성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될 때마다 일제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유성주민들의 대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유성장터에서의 4월 1일 시위는 상당히 과격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에 당시 군중 가

⁴² 박결순, 「대전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p.56

⁴³ 「憲兵派遣所及出張所名稱,位置憲兵隊司令部告示第1號」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헌병파견소급출장소명칭, 위치헌병대사령부고시 제1호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4.08.27).

운데 즉사자 1명, 중상자 3명이 있었다고 보도한 점과 일제가 충남에서 전개된 만세운동 중 ‘광폭狂暴’한 시위로 평가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⁴⁴ 일제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무력으로 해산시켰으며, 대전헌병대에서 6명의 헌병을 증원해 경계태세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유성장터 3.1운동은 3차례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유성지역민들의 독립과 항일의지를 알 수 있는 만세운동이었다.

⁴⁴ 박결순, 「대전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pp.56~57

4. 봉명동과 유성온천의 역사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유성온천이다. 유성온천은 봉명동 일원에 조성된 관광지구이다. 봉명동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궁동리弓洞里·어은리漁隱里와 공주군 현내면의 신흥리新興里·상대리上垓里 등의 일부를 편입해 봉명리가 되었다. 봉명리는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밤이 되면 부엉이가 운다고 해서 봉명鳳鳴이라 했다고 한다.⁴⁵

유성온천의 역사는 전설에서 시작된다. 삼국시대 “백제의 병사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어머니가 집앞 논길에서 다친 학이 논 두렁에 고인 온수溫水에 몸을 적신 후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 물을 아들의 상처에 발라더니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유성온천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온천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온천욕조(1910년대)⁴⁷

⁴⁵ 최문희 편,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p.134

⁴⁶ 최문희 편,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p.134, pp.139~140

⁴⁷ 조선시대발전지

유성온천이 근대 온천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대전에 정착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대전에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도부설과 관련이 있다. 경부선 철도부설에 참여한 일본인들이 대전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철도경비를 위해 일본군 수비대가 들어오고 점차 대전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늘어났다. 일본인들은 1904년 철도공사 관계자 188명이 대전에 거주하기 시작해 1910년에는 3,8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유성온천의 최초 개발자는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의 스즈키 쇼키치鈴木松吉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군으로 러일전쟁에 참여한 후 1910년 10월 한국으로 건너와 유성온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⁴⁸ 스즈키는 유성온천이 조선시대부터 약탕藥湯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전온천주식회사를 설립해 유성온천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검사所中央試驗檢査所 조사에 의하면, 유성온천은 무색투명하고 악취가 없으며, 알카리성을 띠었다고 한다. 특히 ‘라듐’ 함유량이 해운대·온양·온강 등 조선의 다른 지역의 온천보다 가장 함유량이 많은 온천수였으며 당뇨·만성 늑막염·통풍·만성 류마티스·만성 위장병·신장염·신경통·치질·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⁴⁹

1910년대 유성온천에 대해 일본인 다나카 이치노스케田中市之助가 1917년 편찬한 『조선대전발전지』에서는 유성온천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⁵⁰

⁴⁸ 고윤수, 「일제하 유성온천의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역사와 담론』93, 호서사학회, 2020, p.230

⁴⁹ 田中市之助, 『朝鮮大田發展誌』(전중시지조, 조선대전발전지) pp.109~111

⁵⁰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국역조선대전발전지』, 2020, p.134

유성온천 부근 일대는 논이며, 주위에는 구릉이 둘러싸고 있다. 어린 소나무가 사계절 푸르름을 뽐내며, 온천장 주변을 흐르는 물은 완만하며 맑다. 온천회사에서는 온천의 풍취를 곁들이기 위해 벚꽃과 단풍나무를 심고 연못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온천을 통해 병을 고치려는 손님들에게 오락 설치도 완비할 것 같다. 회사가 경영하는 온천욕장은 욕조 4개를 설치한 다음 대욕장 이외에 특등 욕장 등의 2동을 설치했다. 여관 승리관, 매화집의 2개 여관을 설비를 갖추어 입욕객의 편의를 근본 취지로 하여 가장 간편하게 하여 입욕객들의 불편이 없다. 기타 조선인 취향의 여관으로 2~3개가 더 있다. 정말로 유성은 한적하고 풍광이 좋다. 특히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계룡산의 봄 철쭉과 벚꽃, 가을의 단풍을 탐승할 수 있고, 보양지保養地로서도 유람지로서도 이상적인 장소이다. 대전 유성간 2리의 도로는 평탄하며 자동차와 마차, 인력거, 자전거의 교통기관이 완비되어 있다. 자동차 이용료는 왕복에 50전이다.

『조선대전발전지』에 소개된 유성온천은 현재 유성호텔 주변의 온천욕장을 말한다. 유성온천을 소개하면서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과 계룡산과의 연계관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유성온천은 1910년대만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승리관 등 몇 개의 여관 등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유성온천을 방문하는 인원은 많았으나 기존의 교통시설과 온천 설비가 부족해 방문하는 이들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⁵¹ 유성온천의 시설은 방문객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봉명관⁵²

⁵¹ 『부산일보』 1918.9.6, 「忠南の靈地 儒城溫泉」

⁵² 대전시립박물관, 『유성온천과 대전』

『조선대전발전지』에서 소개한 온천회사는 스즈키 쇼키치가 설립한 대전온천주식회사이다. 대전온천주식회사는 스즈키 쇼키치와 나이토 우지오内藤氏雄 등 대전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 유력자 14명이 1914년 2월에 설립한 회사이다. 온천개발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관계로 대전지역 일본인들이 연합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대전온천주식회사는 자본금 1만 5천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살펴본 것처럼 1910년대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다. 1910년대 유성온천 방문객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도 유성온천주식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야기된 것이었다.

유성온천은 1923년 봉명관(鳳鳴館, 현재 스파텔 자리)이 개장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봉명관은 후지나와 분준藤澤文順이 20여 개의 객실과 공동욕장을 갖추고 4천 5백평의 과수원과 1만여 평의 정원으로 조성한 대규모 온천여관이었다. 총사업비는 6만원으로 대전온천주식회사의 자본금 1만 5천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다.⁵³ 후지나와 분준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이하 만철)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성온천 오락장⁵⁴

후지나와는 1912년부터 유성의 땅을 매입했고, 1914년부터 온천개발을 시작했다. 후지나와는 1916년부터 1921년까지 총 23개의 관정을 뚫는 시추작업을 했고, 1922년에야 사업성이 있는 3개의 관정을 찾는데 성공했다. 후지나와는 유성온천주식회사와는 다르게 개인자본으로 온천개발에 착수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시추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온천관광을 통한 수익사업을 모색하던 만철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⁵³ 고윤수, 「일제하 유성온천의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p.237

⁵⁴ 대전시립박물관, 『유성온천과 대전』

만철의 투자를 기반으로 봉명관을 개장할 수 있었다. 봉명관은 라돔 함유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총독뿐만 아니라 일본왕의 딸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⁵⁵

봉명관이 개장하면서 유성온천은 신온천과 구온천으로 구분되었다. 봉명관이 개장한 지역이 신온천으로 불리게 되면서 기존의 대전온천주식회사가 욕장을 운영하던 지역은 구온천이 되었다. 그런데 구온천 지역도 1920년대 큰 변화가 있었다. 공주갑부로 알려진 김갑순金甲淳이 김윤환金潤煥과 함께 대전온천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서 대전온천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김갑순은 회사 이름을 유성온천주식회사儒城溫泉株式會社로 변경하고 자본금을 1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확충했다. 유성온천주식회사는 욕장의 개보수와 오락장 신축, 공원 조성과 전등 가설 등에 확충된 자본을 투자했다. 유성온천주식회사의 이러한 투자는 1925년에 시작해서 1926년에 마무리 되었으며, 공주와 대전의 고위관료들을 초청해 성대한 낙성식을 개최하기도 했다.⁵⁶ 대전온천주식회사가 1910년대 추진했던 공원 조성과 오락실 설치 등을 김갑순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마무리한 것이다.


 유성호텔⁵⁷

이처럼 유성온천은 1920년대 봉명관을 중심으로 한 신온천, 그리고 유성온천주식회사가 개발한 구온천지역을 축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1928년 구온천과 신온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새롭게 개통하기도 했다.⁵⁸ 또한 1930년대 구온천 지역에

유성호텔이 개장하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하게 온천으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개장연도는 알 수 없지만, 신온천에는 봉명관을 비롯해 평양여관平壤旅館·정흥여관鄭興旅館·박병기여관朴炳琦旅館·만년여관萬年旅館, 구온천에는 유성호텔·승리관勝利館·상반관常盤館·스기야마여관衫山旅館·온천여관溫泉旅館·영천여관靈泉旅館등이 성업을 이루었다.⁵⁹

유성온천이 성업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정기적인 교통편이 있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1927년 현재 대전과 공주, 동학사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대전에서 유성온천까지는 50전, 공주에서는 1원 80전, 동학사에서는 60전의 요금을 받았다.

이처럼 유성온천은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도 담당했다. 이러한 점은 1935년 군청소재지 이전운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35년 대전부가 신설되면서 유성면은 대전읍에 있던 군청을 유성으로 옮기는 운동을 전개했다. 유성지역의 유지들이 1935년 ‘군청이전기성회郡廳移轉期成會’를 조직하고 군청이전을 추진한 것이다.⁶⁰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성면이 다른 지역보다 대전면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만년장과 유성호텔(1979년)⁶¹

유성은 유성온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충남의 중심이었던 공주와 대전을 잇는 중간지점이면서 계룡산 동학사를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광복 후에도 대

표적인 관광휴양지로 명성을 이어갔다. 6.25 한국전쟁으로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었으나 1958년에 만년장, 1966년에 유성관광호텔이 개업을 했으며, 신온천지구에는 현재 스파텔 자리에 군인휴양소가 문을 열었다. 1922년 개장한 봉명관은 일본 육군요양소日本陸軍療養소가 되었고, 광복 후에 군軍이 부지를 수용하면서 육군휴양시설로 개장한 것이다.⁶²

광복 후 대표적인 온천탕은 만년장과 유성관광호텔이었다. 만년장은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등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만년장의 단골이었다고 한다. 유성온천은 귀빈들이 대전을 방문하면 반드시 찾는 명소였던 것이다. 1960~70년대는 신혼여행을 온천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성온천은 전국의 온천 중에서 손꼽을 만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 1970년대 후반 만년장이나 유성호텔 외에도 대규모 온천탕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기존의 온천탕들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1981년에는 온천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1994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조선대전발전지]의 유성온천 소개부분(© [조선대전발전지, 1917])

⁵⁵ 고윤수, 「일제하 유성온천의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p.237

⁵⁶ 고윤수, 「일제하 유성온천이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p.242

⁵⁷ 대전시립박물관, 『유성온천과 대전』

⁵⁸ 『동아일보』 1928.6.10, 『儒城溫泉道路 去七日開通』(유성온천도로 거칠일개통).

⁶² 고윤수, 「일제하 유성온천이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p.237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III

장대B구역의 도시와 건축

건축·역사 분야

1. 장대B구역의 도시공간과 경관
2. 장대B구역의 건축현황과 분석
3. 장대B구역의 주요 건축물 기록

1. 장대B구역의 도시공간과 경관

1) 삼국시대의 유성

(1) 유성구와 장대동 도시공간의 역사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북서부에 있는 대전의 주요 행정구行政區로 13개 행정동과 53개 법정동이 속해있다.

유성구의 입지적 여건을 보면, 동쪽으로는 유성구의 젖줄인 갑천을 경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계룡산맥을 경계로 충청남도 공주시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계룡시, 북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인접해 있다.

유성구의 동서간 연장거리는 15.6km이며, 남북간 연장거리는 26.1km이고, 총 면적은 176.46km²로 대전광역시의 5개 행정구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다.

구분	위도와 경도 ⁶³		극점 지명	연장거리	총 면적 ⁶⁴
	위도	경도			
동단	36° 24' 24"	127° 25' 20"	탑립동 629-1	동서간	176.46km ²
서단	36° 17' 25"	127° 4' 54"	송정동 624-1	약 15.6km	
남단	35° 15' 40"	127° 17' 38"	방동 산 75-4	남북간	
북단	36° 29' 47"	127° 36' 6"	금탄동 561	약 26.1km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수리적 위치와 면적

삼국시대 백제가 건국하면서 유성구 진잠지역에 백제의 진현현眞峴縣이, 유성구 상대동지역에 노사지현奴斯只縣이, 그리고 유성구 덕진동지역에 소비포현所比浦縣 등 3개의 고을이 등장하게

⁶³ 유성문화원,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2000.12.20. p.15

⁶⁴ 대전광역시 유성구(www.yuseong.go.kr)

된다.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 이후 663년까지 진현성을 비롯 해 소비포성은 백제부흥군의 요람지였다.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고려시대 유성현은 비풍군 관할의 현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시대 유성현은 공주목公州牧에 속한 현으로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년) 군현제 개편 당시, 유성현과 덕진현이 폐현되어 공주목에 속하였으며, 진잠현은 공주목의 영현이 되었다.⁶⁵



팔도군현지도⁶⁶에 기록된 유성(儒城)



대동여지도⁶⁷에 기록된 유성(儒城)

⁶⁵ 앞의 책, pp.18~20

⁶⁶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팔도군현지도(작자미상, 18세기), 충청도 공주

⁶⁷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동여지도(김정호, 1861년), 15권 4면·16권 4면

장대동은 유성구의 행정동인 온천2동에 속해있으며, 유성구 중앙에 위치한 법정동이다. 백제시대에는 노사지현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 경덕왕⁶⁸ 16년(757년) 비풍군比豐郡의 영현인 유성현儒城縣 속했고, 고려시대에는 공주부公州府에 속했다.

조선시대에는 공주군 현내면縣內面 지역으로 유성장儒城場이 있어 장대리場垔里라고 하였다. 영조 36년(1760년)에 발간된 『여지도서』에 따르면, 현내면 동자산리의 가호 수가 64호였으며, 남자가 135명, 여자가 137명으로 총 27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동잠리와 유성리, 동자동, 중봉리, 구암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장대리라 하였으며 대전군 유성면에 편입되었다. 당시 유성면사무소도 장대리에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유성에서 장대리가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⁹



일제강점기 구 지형도⁷⁰에 기록된 장대리(場垔里)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조선 강제 병합과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시작된 만세운동 물결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 되었다.

당시, 대전지역도 다르지 않았다. 최근까지 대전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 장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충북대학교 박결순 교수⁷¹에 의해 유성시장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 이후

⁶⁸ 경덕왕(景德王, ?~765년), 신라 제35대 왕(재위 742년~765년)

⁶⁹ 유성문화원,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 2000.12.20. pp.183~187

⁷⁰ 국토정보플랫폼, 구 지형도(1919년), 유성, 1:50,000

⁷¹ 박결순, 충북대학교,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남·북지역 3·1운동의 특징과 성격, 2019.

대전지역 전체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로 정립되었다. 박결순 교수의 연구⁷²를 참고하여, 대전지역 독립만세운동의 흐름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일 자	장 소	주요 내용
1919. 3. 16.	유성장터	이상수·이권수가 중심이 되어, 민중 300명 참여
1919. 3. 27.	인동장터	김정철의 독립선언서 전달과 김창규 등 10명 참여
1919. 3. 28.	유천면사무소	민중 30명이 면장과 구장에게 만세 시위 요구, 폭행
1919. 3. 29.	가수원리 산상	민중 400명이 가수원리 산상에서 봉화만 세시위(야간)
1919. 3. 31.	유성장터	민중 200명이 시위 도중 일제와 충돌, 사상자 발생
1919. 4. 1.	인동장터	민중 3~400명이 시위 도중 일제와 충돌, 사상자 발생
	유성현병분견소	민중 70명이 낫과 가래 등을 들고 습격,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 발생
	갈마동(치마)	민중 30명이 만세 시위

대전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전개 과정⁷³

(2) 유성온천의 과거와 현재

유성천을 사이에 두고 장대동과 마주하고 있는 봉명동에는 ‘유성온천’이라는 유성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산이 있다. 관련 연구를 통해, 유성온천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사』 「지리지」에

“유성현은 원래 백제의 노사지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어 비풍군 관할의 현이 되었으며 고려에 와서도 그 명칭을 그로 썼고 온천이 있다.”

는 짧은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유성현 동쪽 3리쯤 되는 곳에 온천이 있으며, 태조가 계룡산에 궁궐터를 잡으려 할 때와 태종이 임실현에 가서 강무講武할 때 여기서 목욕을 했다.”

는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유성온천의 존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⁷² 박결순, 충북대학교, 대전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vol.94, 2020.4.30, pp.35~68

⁷³ 앞의 연구, pp.62~63

항공이 설치되었던 ‘온양온천’과 달리 봉명지역은 대부분 논밭이었다.

유성온천의 가치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전에 거주하던 재조일 본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봉명리에 있던 한 버드나무 아래 온천수가 나오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동네 빨래터로만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⁷⁴ 1910년 스즈키 쇼키치鈴木松吉라는 재조일본인과 대전에 거주하던 일본인 유지들에 의해 온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외부의 투자도 이어졌다. 유성온천 개발은 비단 유성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대전면을 중심으로 구축된 철도망이 새로운 대중교통과 연결되어 유성온천까지 확장되는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었다.



일제강점기 유성호텔(現 온천수 공원) 본관 전경⁷⁵

1915년 유성호텔(現 유성관광호텔)이 현재 온천수 공원 부근에 개관하였다.

1920년대 중반 김갑순을 위시한 공주지역 유지들에게 소유권이 잠시 넘어갔다가 1932년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유성온천의 소유권은 다시 대전지역 유지들에게 넘어오게 된다.⁷⁶

해방 후 한국전쟁이 지나고, 1958년 리베라 호텔(2018년 폐업)의 전신인 만년장이 개관하였으며, 1966년 유성온천호텔이 지역 최초의 관광호텔인 「유성관광호텔」로 신축 개관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옛 사진 자료를 보면, 당시 1~2층의 낮은 규모였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신축 개관으로 5층 이상의 고층 건물로 변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당시 뱃놀이를 즐겼던 연당蓮塘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옛 항공사진 자료가 있어,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954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된 유성온천

1969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된 유성온천



1966년 유성관광호텔 전경⁷⁷

2023년 현재 유성관광호텔 전경

1994년 국내 최초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유성온천지역 일대는 호황을 맞는 듯 했으나, 1999년 관광특구 해제로 점차 그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후 도안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관광 도시의 이미지는 사라져 가고,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소형 원룸들을 비롯한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하나둘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100여 년을 이어 온 유성온천지역도 세월의 흐름과 변화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오래전 유명했던 많은 대형 관광호텔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00주년을 맞이해 전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던 유성호텔(유성관광호텔)도 마찬가지다. 2022년 10월 외지의 부동산 신탁회사에 의해 매입되면서 2024년 3월 문을 닫을 예정이다.

⁷⁷ 유성관광호텔 복도에 전시된 옛 사진

⁷⁴ 朝鮮總督府, 朝鮮, (조선총독부, 조선) 97, 1923, pp.140~141

⁷⁵ 근대사진엽서로 보는 대전 100년사

⁷⁶ 고윤수, 대전광역시, 일제하 유성온천의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vol.93, 2020.1.30., pp.225~262

2) 장대B구역과 유성시장

(1) 장대B구역 도시공간의 변화



장대B구역 위치도

과업 대상지인 장대B구역은 남쪽으로 유성천이 봉명동과의 경계를 나누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유성대로, 동쪽으로는 장대로를 중심으로 각각 장대A구역, 장대C구역과 마주하고 있다.

장대B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범위 내·외부에 있는 주요시설을 보면, 유성시장과 유성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공간을 비롯해, 장대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초등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유성고속버스터미널, 유성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은 원거리 대중교통수단과 구암역, 유성온천역, 현충원역 등이 위치해 입지적 여건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장대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물건을 사고파는 상설·비상설 시장이 중심이었던 장대동은 거주 인구의 증가와 공간의 확장, 주요 도로의 구획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도시공간이 형성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 자료(1954년)를 통해, 장대B구역의 과거와 현재의 도시공간을 비교해 보면, 건물로 빽빽하게 들어찬 현재와는 달리 유성천과 인접한 지금의 ‘유성대로 718번길’과 ‘유성대로 720번길’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논, 밭과 같은 경작지였다.



장대B구역 1954년 항공사진⁷⁸

장대B구역 2022년 항공사진

지금은 왕복 6차선의 ‘유성대로’가 주요 도로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장대로’가 대상지의 주요 도로였다. 장대C구역과의 경계를 나누고 있는 ‘장대로’는 왕복 2차선의 비교적 좁은 도로지만, 유성천을 가로질러 봉명동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일대에서 유성천 남북을 연결하던 유일한 도로였던 것으로 볼 때, 중요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유성대로⁷⁹’는 1970년대~1980년대 유성지역 개발과 함께 조성된 새로운 도로로, 이때 유성대로의 조성은 현재의 장대B구역을 형성한 중요한 도시 선⁸⁰이었다. 최초 조성 당시에는 ‘장대로’보다 조금 넓은 수준의 왕복 2차선 도로였으나, 통행량의 증가로 1990년대 말 4차선으로 확장된 후 다시 2017년 6차선으로 확장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장대B구역 1973년 항공사진

장대B구역 1985년 항공사진

⁷⁸ 국토정보플랫폼, 항공사진(1954~2022)

⁷⁹ 2010년 3월 유성대로로 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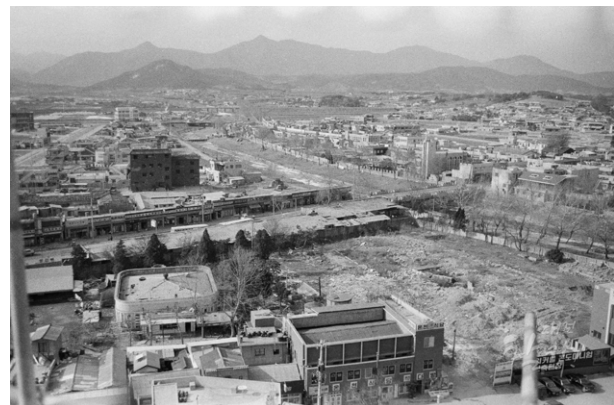
유성대로가 조성되던 1970년대~1980년대 유성지역 개발 시기, 대상지와 봉명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변화가 나타난다. 경작지로 이용되던 일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계획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격자형의 가로망이 조성되었고, 가로와 가로로 구획된 작은 블록에는 하나둘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 시기 조성된 격자형 가로망과 보행로 등은 지금의 장대동과 봉명동의 골격이 되었다.



1979년 유성시범상가 주변 경관⁸⁰ 2023년 유성시범상가 주변 경관

이때 유성시범상가도 조성되었다. 1976년 11월 당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유성시범상가는 일대의 경관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2층 규모의 통일된 파사드를 한 건물들은 오래된 상업공간에 현대화를 불려왔다.



1981년 옛 리베라호텔에서 바라본 장대B구역⁸¹

유성시범상가와 그 일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건물이 새로운 치장으로 얼굴을 바꾸었지만, 당시의 모습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⁸⁰ 대전광역시, 사진으로 보는 大田市史(下), 1999.8.1, p.236

⁸¹ 대전광역시, 대전찰각, 유성시장쪽에서 본 장대동 방향 옛모습, 1981
* 자료의 설명내용과는 달리, 옛 리베라호텔에서 주로 봉명동 방향을 바라본 옛 사진이며, 장대B구역의 당시 모습을 일부 볼 수 있음



장대B구역 1991년 항공사진

장대B구역 1998년 항공사진

장대B구역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밀도를 보이게 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보인다. 1994년 온천관광특구 지정과 1990년대 대전 서남부권 개발계획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금의 도시 밀도를 보이게 된다.

(2) 유성시장 이야기⁸²

시장은 경제적 기능만을 담은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닌, 지역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커뮤니티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1960년대 유성시장 행상들

1983년 유성장터의 모습

옛 사진 자료를 보면, 유성시장은 5일장이 열리면 하천의 독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유성장육과 일대는 앞서 언급한 대로 논, 밭과 같은 경작지였다.

1924년 기록을 통해 당시 유성시장의 규모와 품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유성시장에는 우시장과 잡시장이 있어, 잡품의 거래가 많았던 노점시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날 상인의 수는 100~150여 명 정도였으며, 이용객의 수는 350~6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유성시장의 상인이나 이용객의 수를 볼 때,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40년 유성시장의 상설 상업시설과 거주 가호의 수는 약 20호에 그쳤는데, 이를 통해 유성시장은 규모가 큰 시장

⁸² 각주의 글과 사진은 충남대학교 백마사회공헌센터, 유성장육 백년시장이 되다, 2019.2.15., pp.5~2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은 맞으나, 상설시장이 아닌 비상설로 유지되어 온 시장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성시장의 상설 상업시설은 당시 가건물의 장육⁸³이었다. 상인들은 장육 앞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판매할 상품을 전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한국전쟁 당시 모두 전소되었다. 이후 미국으로부터 재난 원조로 받은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상업시설들을 다시 조성하였고, 2006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유성장육’을 조성하였다.

유성장육 안에는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지만, 대부분이 식당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들은 장육 외부에 늘어서 있다.

당시 대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마차로 실어 유성시장 가장자리에 있는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다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공용창고가 있어 상인들이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사용료는 주변 식당에 식사비로 지불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시장 한쪽에 닭을 파는 ‘닭전’, 나무 파는 ‘나무전’, 새벽에 나무를 팔러 온 사람들을 위한 ‘떡전’이 있었고, 이후 하나 둘씩 새로운 품목들이 나타났는데, 해방 후 나무전과 떡전이 점차 사라졌다. 유성시장이 확대된 것은 농산물의 생산이 증대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주변에서 곡물, 고추 등의 품목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라고 한다.

유성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전의 대표적 상업공간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5일장 중 하나이다.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발달과 1970년대~1980년대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성시장 5일장 풍경⁸³

⁸³ 한유영, 충청투데이, 100년 전통 유성시장 … “따뜻한 情이 넘치네”, 202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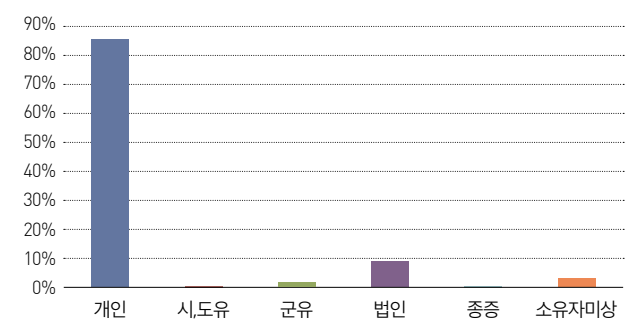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의 서쪽 끝에 있는 유성구와 그 중심에 있는 장대동, 그리고 장대B구역이라는 도시공간은 을미의병과 대전지역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이며, 지난 100년 동안 지역의 상업공간이자 문화공간, 커뮤니티공간으로 이용되던 소중한 문화자원인 유성시장이 있는 한 권의 이야기책이자 사람 냄새 가득한 대전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2. 장대B구역의 건축 현황과 분석

과업 대상지인 장대B구역의 건축물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총 237개소의 필지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별', '필지 지목별', '건축물 연대별', '건축물 주 구조별', '건축물 층별',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용도별' 현황 분석 그래프와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1) 장대B구역 소유자별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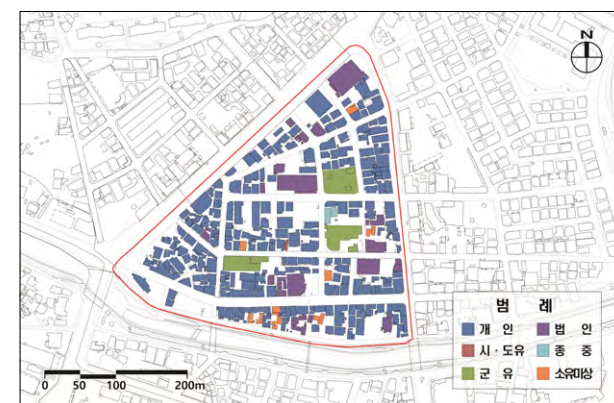
장대B구역 소유자별 건축물 현황 그래프

대상지의 소유자별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인', '시·도유', '군유', '법인', '종중' 등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미상'으로 분류하였다.

장대B구역 건축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85%(203개소)의 비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8.9%(21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유로 확인된 건축물은 1.7%(4개소)였으며, 시·도유와 종중 소유의 건축물이 각각 0.4%(1개소)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소유자미상인 건축물이 3%(7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보면, '하나로마트 장대점', '농협은행 유성지점', '유성농협 장대동지점'과 '넥스투빌 오피스텔'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 그리고 '유성성결교회'와 같은 종교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1/3(7개소)은 신탁조합에서 소유한 건축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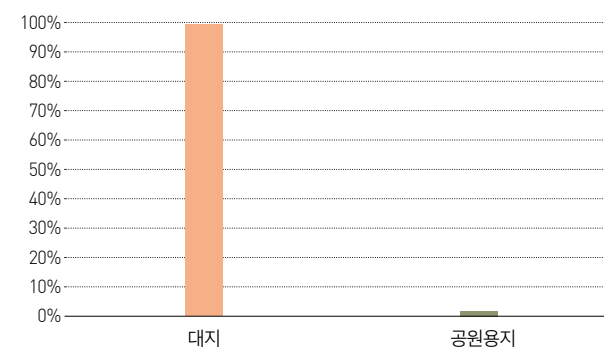
장대B구역 소유자별 건축물 현황 분포도

군유로 확인된 건축물은 '유성장옥'과 '장대노인회관', '장대청 소년문화의집' 등 3개소와 나대지(장대동 276-12) 1필지로 나타났다.



넥스투빌 오피스텔(장대동 278-2, 법인) 장대청소년문화의집(장대동 282-15, 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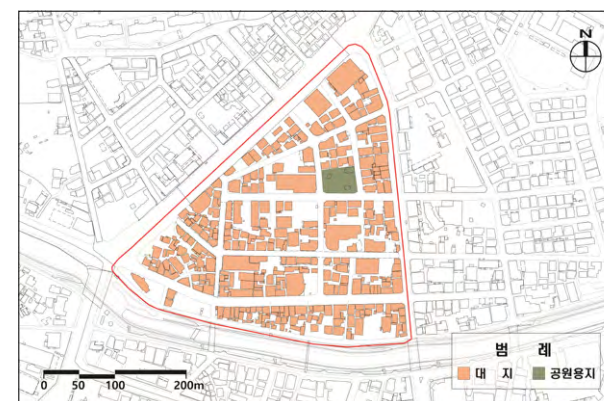
2) 장대B구역 지목별 건축물 현황



장대B구역 지목별 건축물 현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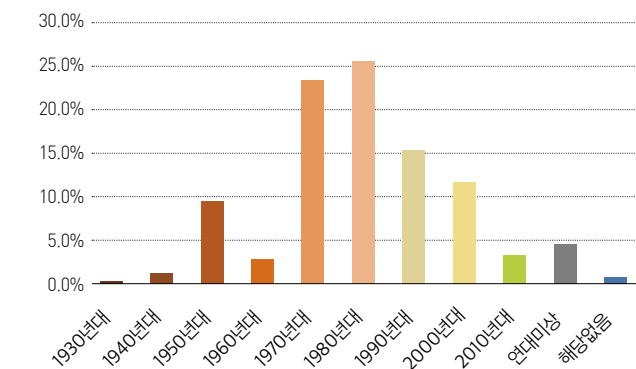
장대B구역을 구성하는 필지의 지목별 현황을 보면, '대지'가 99.6%(23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개소의 공원용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용지로 확인된 필지는 장대노인회관이 위치한 '유성의병사적지(어린이공원)'이다.



장대B구역 지목별 건축물 현황 분포도

3) 장대B구역 연대별 건축물 현황



장대B구역 연대별 건축물 현황 그래프

장대B구역을 구성하는 건축물을 연대별로 분류한 결과,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자별 현황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자가 미표기된 건축물은 '연대미상'으로 분류하였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해당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지 내 건축물의 연대별 현황을 보면, 1980년대와 1970년대 건축물이 각각 25.7%(61개소)와 23.6%(56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건축물이 각각 15.6%(37개소), 11.8%(28개소)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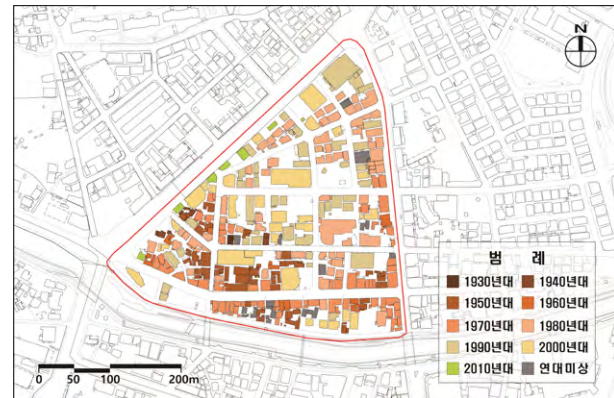
풍년떡집(장대동 277-19, 1935년 건축) 우리축산도매(장대동 275-1, 2016년 건축)

이는 1976년 '유성시범상가'의 조성과 1970년대~1980년대 유성지역 개발로 인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1979년 유성시범상가 주변 경관⁸⁰ 2023년 유성시범상가 주변 경관

실제 장대B구역 건축물의 연대별 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당시 유성시범상가로 조성되었던 ‘유성대로 720번길’을 중심으로 좌·우에 마주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1970년대~1980년대 조성된 건축물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장대B구역 연대별 건축물 현황 분포도

다만, 1970년대 중반 유성시범상가의 조성 and 유성지역 개발로 인한 도시화 현상은 이 일대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대로를 중심으로 장대C구역과 마주하고 있는 건축물들도 대부분 1970년대~1980년대 건축물인 것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장대B구역은 유성천에 면하고 있는 유성대로 718번길과 720번길부터 현재 유성장옥이 위치한 지역까지 일정 구역을 중심으로 상설·비상설 시장이 들어섰으며, 대상지의 1930년대~1950년대 건축된 건축물들의 흔적은 현재 이 일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⁸⁴

둘째, 유성대로 720번길을 중심으로 유성시범상가가 조성되고, 유성지역의 개발과 함께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80년대까지 대상지 일대에 많은 수의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셋째, 1990년대~2000년대에는 현재 ‘유성장옥’부터 ‘유성대로’와 면하는 지역까지 일정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물들이 신축되었다.

넷째, ‘유성대로’를 중심으로 장대A지역과 마주한 지역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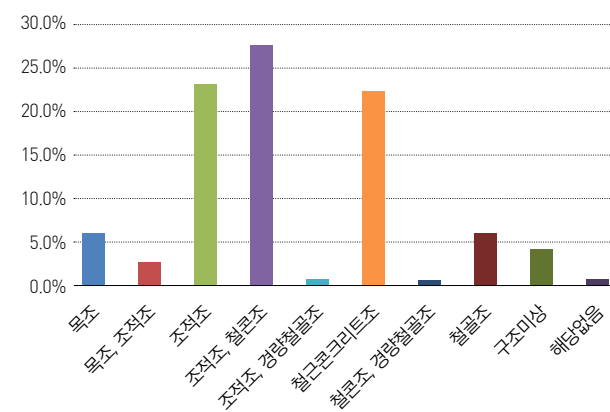
교적 최근(2010년대)까지 건축물들이 신축되었으며, 2007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더 이상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



1970년대~1980년대 건축물이 남아있는 장대로 일대 가로경관

현재 장대B구역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연대별 분포도를 보면 시간의 순서가 어지럽게 얹혀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된 시기적 분포와 주요 도로에 면하는 파사드의 모습을 통해, 작지만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던 것을 알 수 있다.

4) 장대B구역 구조별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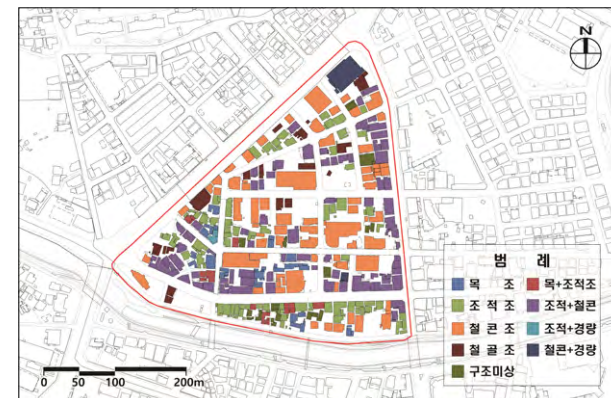
장대B구역 연대별 건축물 현황 그래프

건축물의 연대별 분포만큼이나 장대B구역의 건축물들은 다양한 구조로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주 구조를 조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장대B구역의 건축물은 크게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와 목조+조적조,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 등 두 가지 구조재를 주 구조로 하는 ‘합성구조’로 된 건축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터칼국수(장대동 192-4, 목조) 아인스빌 아파트(장대동 212-6, 철콘조)

장대B구역 내 건축물의 주 구조별 현황을 살펴보면,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를 주 구조로 하는 건축물의 비중이 29.1%(6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적조의 비중이 24.5%(58개소)로 높게 나타났으며, 철근콘크리트조로 된 건축물이 23.6%(56개소)로 조적조와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대B구역 구조별 건축물 현황 분포도

장대B구역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주 구조별 현황 분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적조나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된 건축물들은 주로 유성대로 720번길과 장대로에 면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를 주 구조재로 하는 건축물들은 주로 대상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건축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목조 혹은 목조+조적조 건축물은 1930년대~1960년대에 건축되었으며, 조적조 혹은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은 1970년대~1980년대에 주로 건축되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조 건축물들은 주로 1990년대~2000년대 이후의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조별 건축물 현황 분포는 연대별 건축물 현황 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1970년대 유성시범상가가 조성되었던 유성대로 720번길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조적조 건축물이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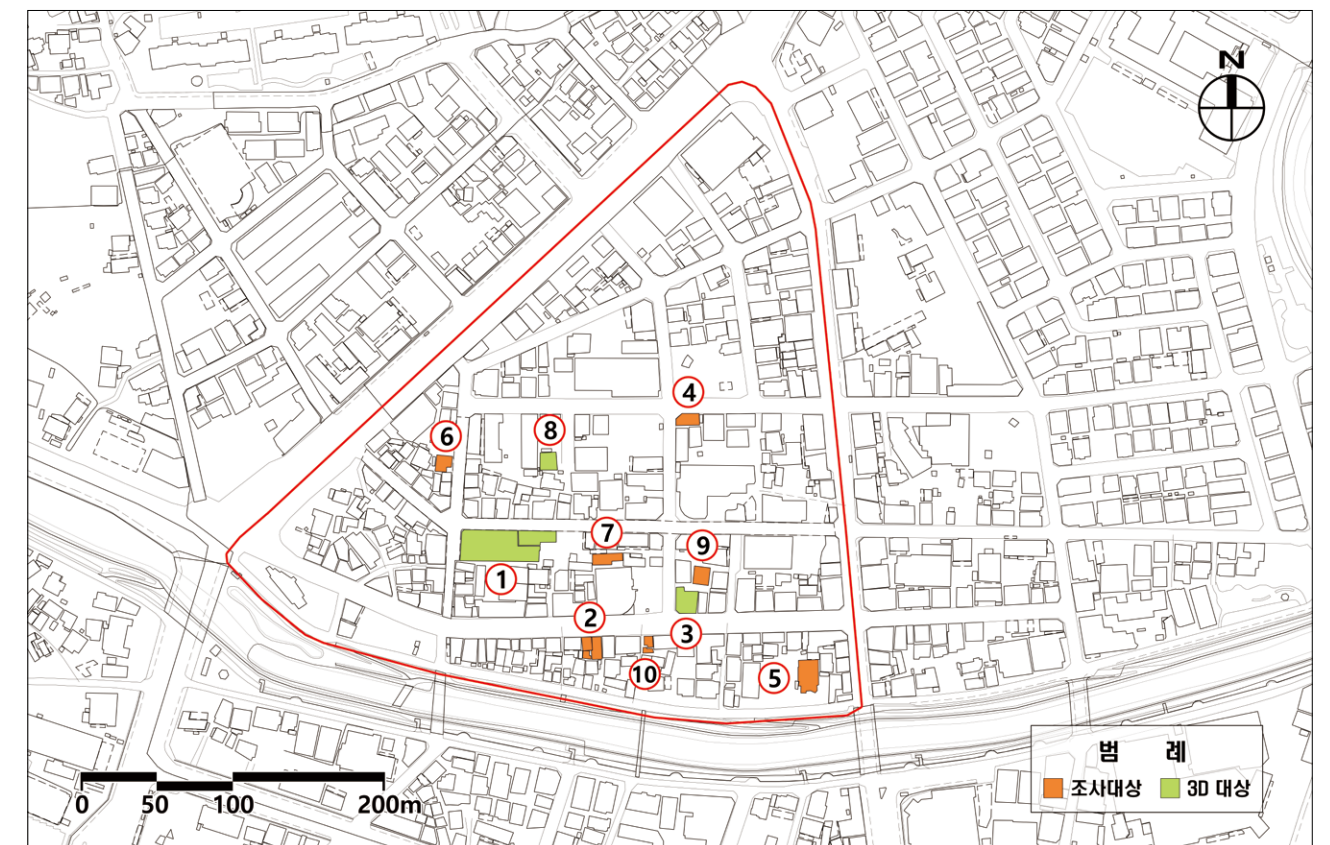
쪽에는 주로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나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교적 면적이 큰 건축물은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하고, 면적이 작은 건축물은 조적조로 건축하여,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⁸⁴ ‘유성대로’, ‘장대로’와 같이 주요 도로와 면하지 않고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어 재건축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소로와 골목길을 중심으로 1930년대~1950년대 건축된 건축물들이 분포되어 있음.



3. 장대B구역의 주요 건축물 기록

조사대상 주요 건축물 위치도



01

장대동 191-7(유성대로 730번길 24) : 유성장옥(3D 대상)

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33.06㎡

건립년도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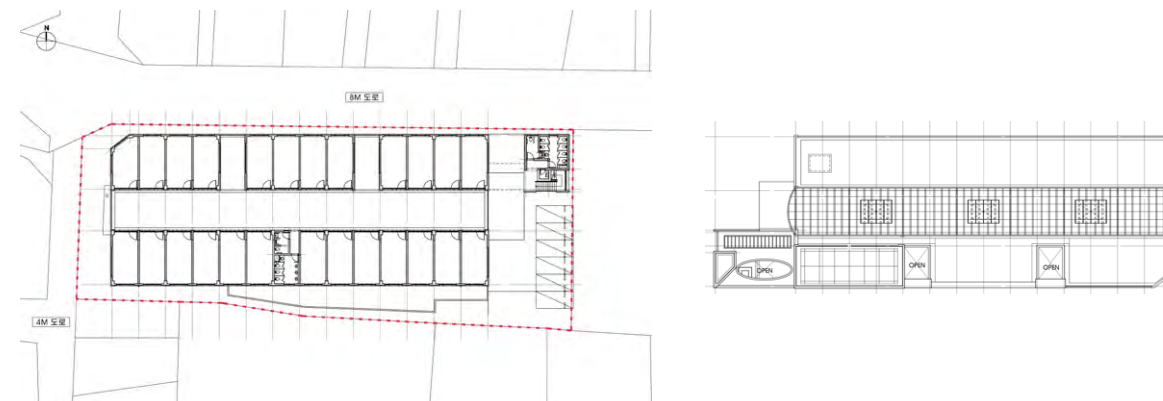
장대동에 위치한 건물 중 비교적 현대에 들어서 지어진 건축물이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판매자 및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원도심에 구축된 가로를 중심으로 1층 상점을 포함해 지역을 오가는 상인, 농부 등이 매일 5일마다 모여 전통시장을 형성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며 날씨, 복잡한 교통, 유통과정의 변화 등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며 기존의 불편함을 보완하고자 상가형 시장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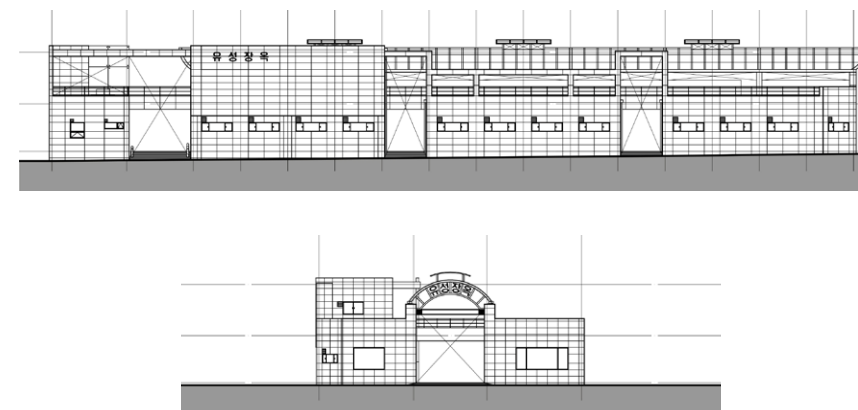
장대동 191-7번지에 자리 잡은 유성장옥은 중앙에 길을 두며 양옆으로 장방형 육면체의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길을 기준으로 상가가 집합하여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좁은 거리를 확보하며 상가의 구획을 통해 소비자가 편히 보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의 통로 지붕에는 아치형의 구조물인 아케이드 지붕을 설치하여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2층 사무공간이 있으며 2층에서 두 개의 건물을 통행하는데 어렵지 않게 아케이드 지붕 아래로 돌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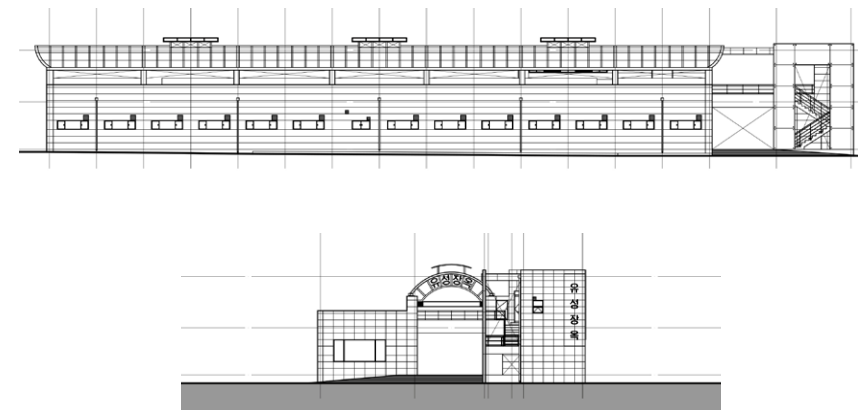
배치도 / 지붕평면도



정면도 / 우측면도



배면도 / 좌측면도



02

장대동 194-29(유성대로 720번길 46) : 낙원떡집

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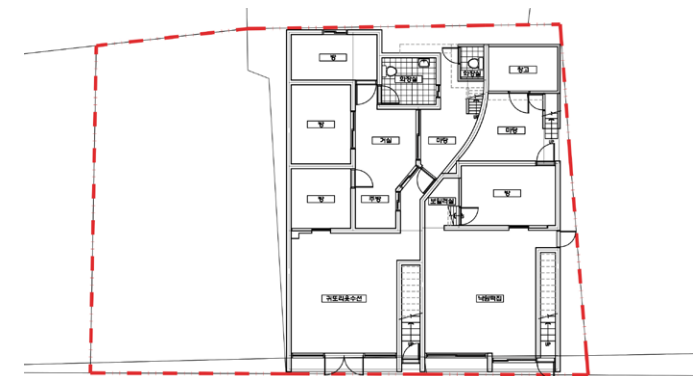
건립년도

1977년

대상지를 포함한 세 개의 건축물이 맞벽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건물은 2층과 옥상으로 향하는 출입구와 계단실을 개별로 배치하여 건물 간의 이동이 불가하고 대지경계에 따라 평면이 계획되어 내부의 실 구성과 모양 또한 모두 다르다.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은 가로로 향해 개구부를 일정한 간격과 규격으로 맞추어 통일된 느낌을 주게끔 구성되었는데, 시장 가로가 형성됨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의 건축물 또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1층 평면은 떡집을 운영하는 부부의 업무공간과 잠시 쉴 수 있는 방 한 칸,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일러실 윗 공간을 다락으로 사용한다. 방의 안쪽 문 또는 떡집의 오른쪽 문은 뒷마당과 연결되어 창고인 부속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의 주 출입구 오른쪽 문을 통해 올라가면 건물의 2층에 다다른다. 기존 방 두 개와 화장실이 있었는데, 세입자를 들이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막고 방 두 개가 추가로 더 증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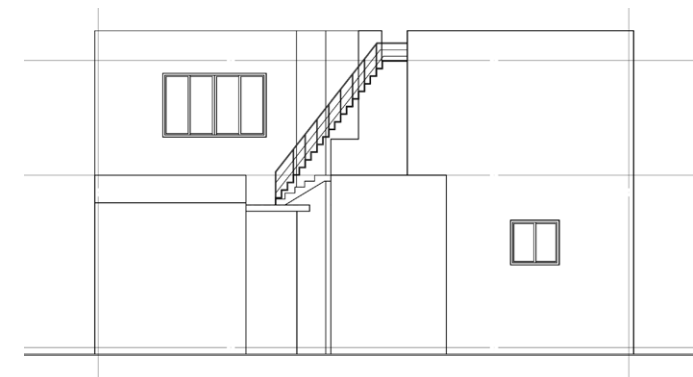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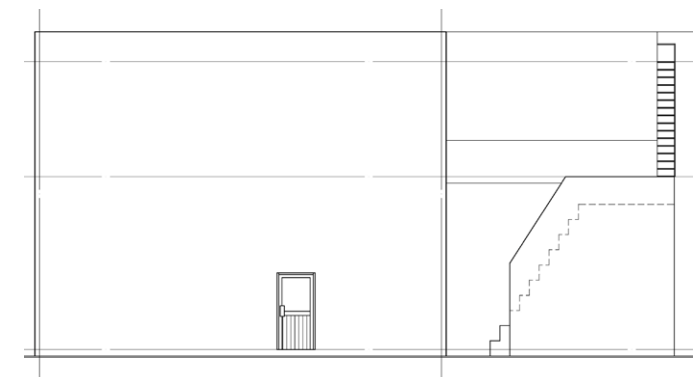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03

장대동 191-39(유성대로 720번길 57) : 성제한의원(3D 대상)

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103.36㎡

건립년도

1982년

본래 1층 한의원, 2층 주거시설, 3층 주거시설로 사용된 건물이다.

1층 주출입구와 출입구 우측은 얇은 판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나머지는 페인트 마감으로 입면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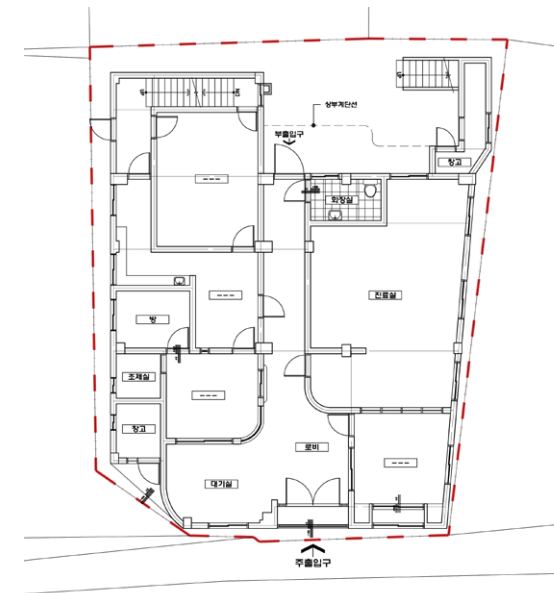
가로의 구성에 맞추어 5면의 입면이 1층인 한의원은 조제실, 진료실, 처치실 등 병원시설의 평면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 출입구를 지나 마주하는 로비와 대기실은 호를 그리는 곡선의 벽을 볼 수 있다. 총 6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와 지상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이 통합되어 있다. 지상 2층은 1층의 규모를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데, 방 6개, 화장실 두 개, 주방, 창고로 구성되었으며 1층과 동일한 위치에 2층 집 내부에서 3층의 베란다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계단으로 굴곡이 있는 돌음계단의 형태이다. 입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2개 세대의 집이, 왼쪽에는 베란다가 있다. 2개 세대 건물은 각각 베란다를 통해, 돌음계단의 끝인 전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방 2개,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었다.

1층, 2층, 3층 모두 건물의 정면 창 하부에 벽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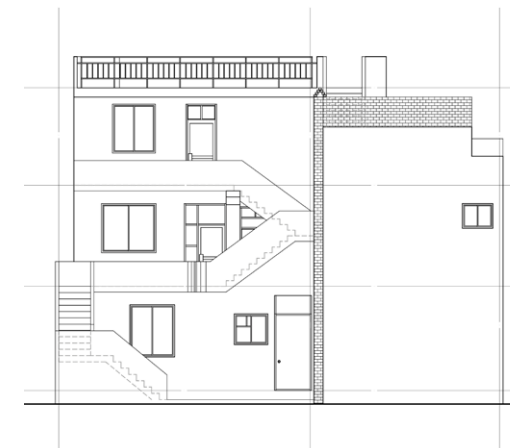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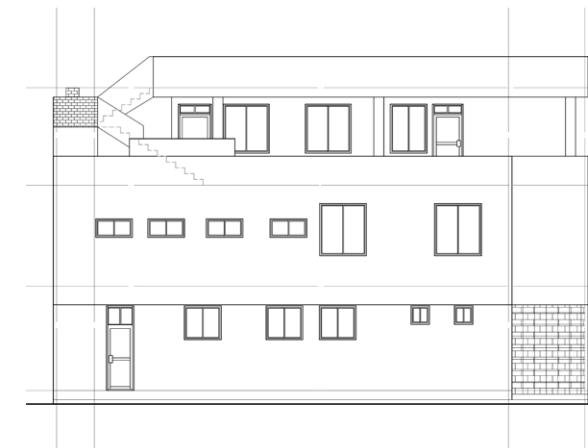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04

장대동 282-1(유성대로 736번길 32) : 대부축산

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79.96㎡

건립년도

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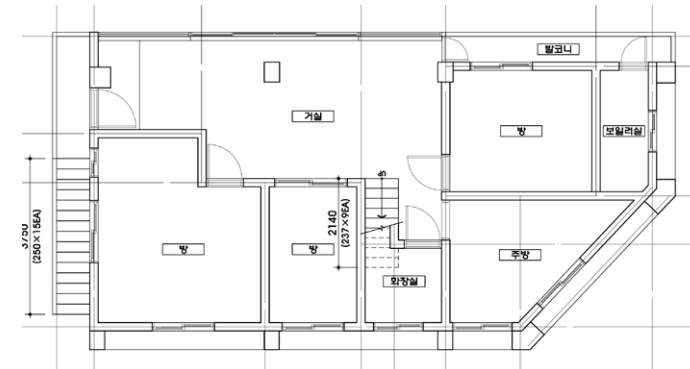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상가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이며 현재는 정육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2층은 주택으로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거실, 방 3개, 화장실, 계단실,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적 특징은 2층 내부에서 3층 옥상으로 가는 계단실이 있는 것이다. 거실에 위치한 기둥을 중심으로 일부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거실 또는 주방 옆 보일러실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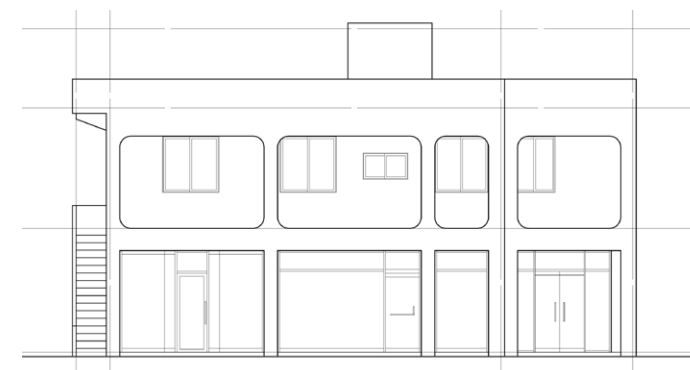
정면과 우측면 창문이 있는 면에 기둥 간격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빈공간으로 디자인한 입면적 특징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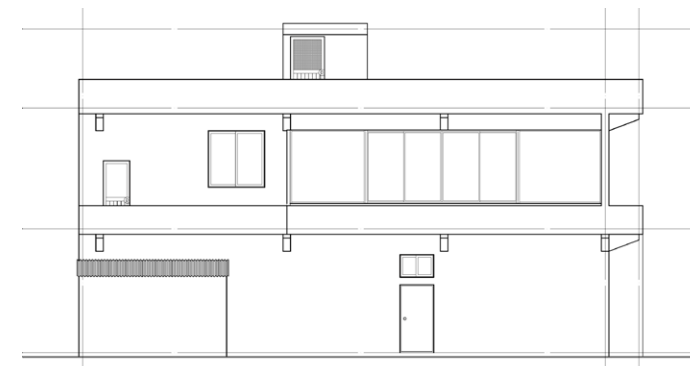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05

장대동 11-16(유성대로 718번길 75) : 유성성결교회

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24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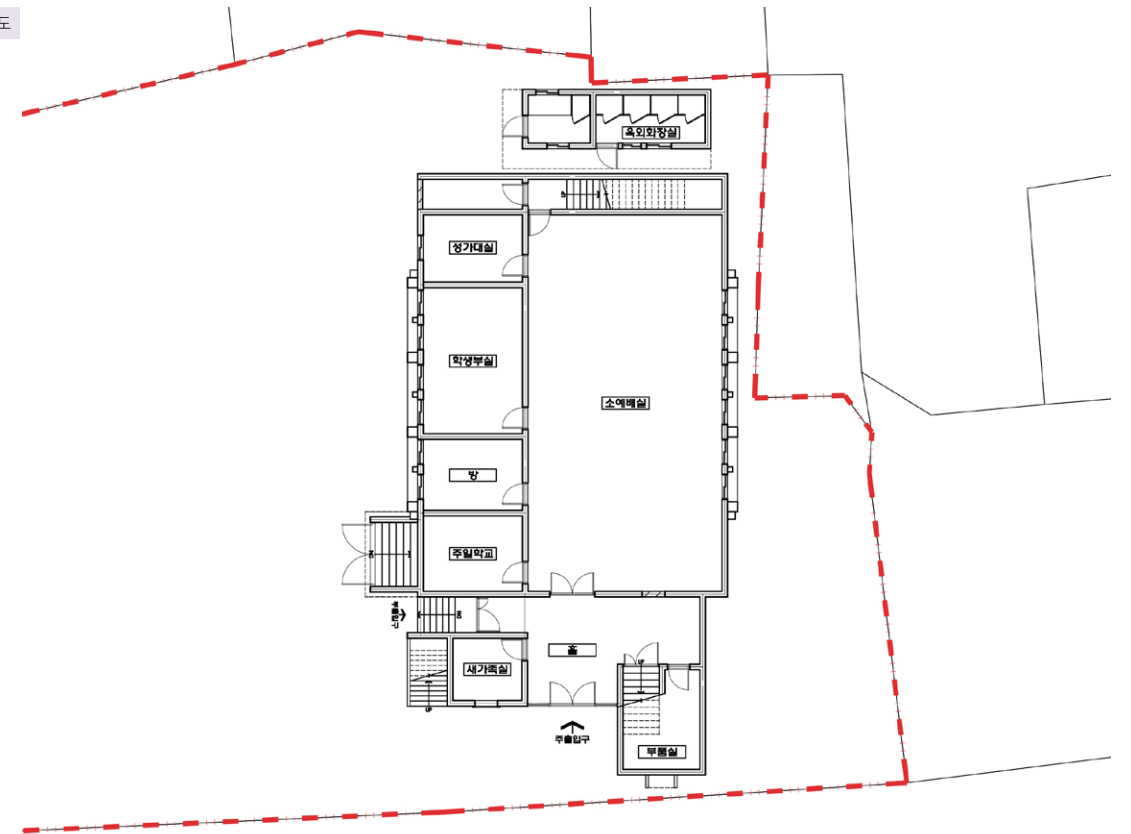
건립년도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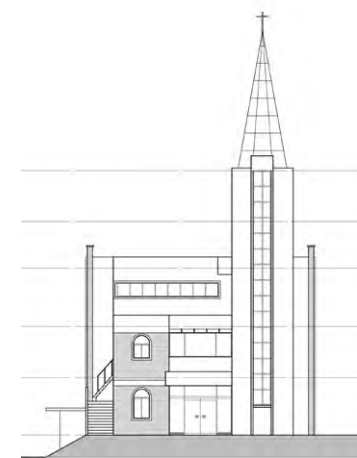
같은 대지 안 지형적인 레벨이 달라서 도로쪽의 주출입구와 주차장쪽의 부출입구 간 레벨 또한 다르다. 1층은 크게 계단실, 새가족실, 소예배실로 나뉘는데 소예배실 외에도 내부 왼쪽에 가벽을 세워 각기 다른 크기의 주일학교, 성가대실, 학생부실로 사용되고 있다. 2층은 대예배실로 교단 뒤 1층에서 2층으로 설교를 위해 올라오는 담임목사님의 전용 계단 통로가 있다. 2층과 3층의 슬라브 일부가 개방되어 있어 수직적인 개방감을 주고 3층 유아실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입면적 특징은 직사각형의 큰 매스에 계단실을 활용한 십자가탑이 붙어 있는 형태이다. 붉은 벽돌과 흰색의 페인트 마감으로 색의 대비를 주며 좌우측면 기둥 사이 공간 개구부를 통일시켜 정적이면서 화려하고 정면의 십자가를 지지하는 계단실의 얇은 입면은 뒷부분의 넓은 교회 건물과 대비되며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배치도



정면도



좌측면도



06

장대동 275-6(유성대로 730번길 17-7) : 주거시설

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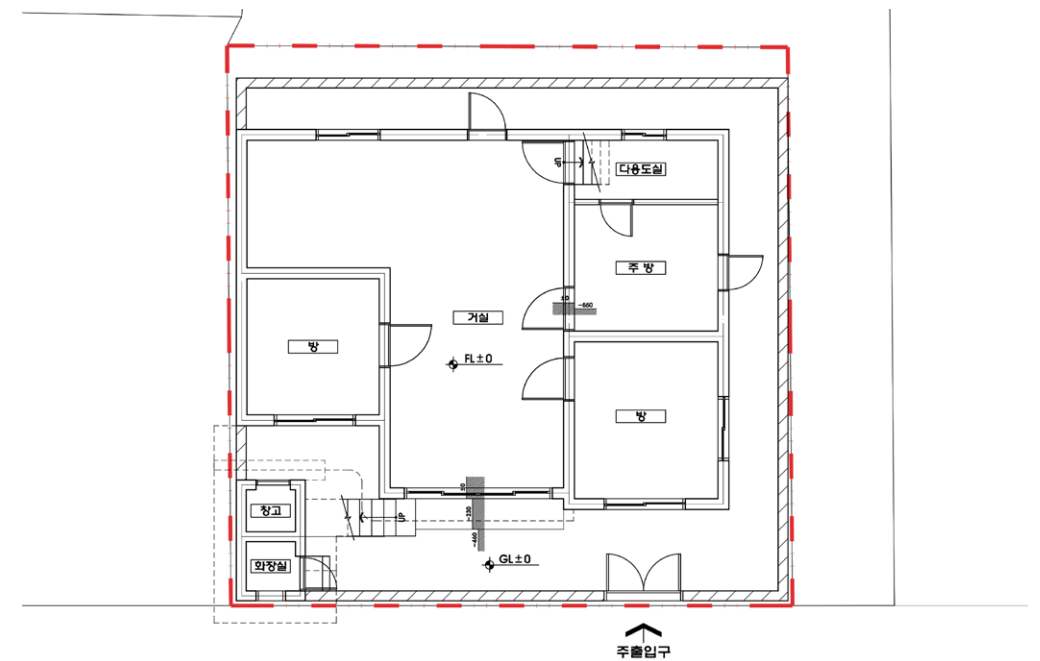
건립년도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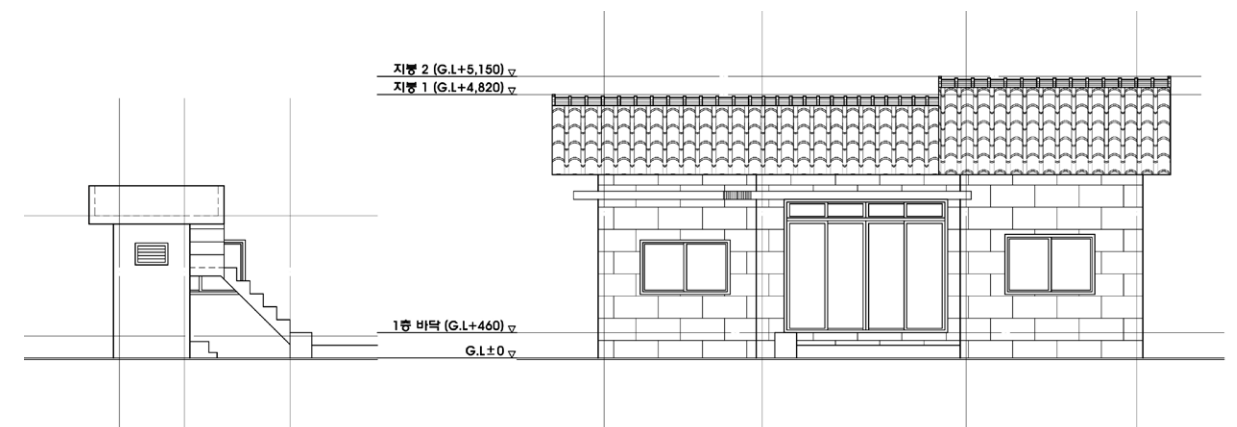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장대 5일장마다 열리는 칼국수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중심 거실을 기준으로 양 옆 방 3개와 주방, 다용도실이 있다. 외부 부속사에 따로 화장실을 두고 있으며, 주방을 통해 들어가는 다용도실 위는 다락이 있다. 평면적 특징으로는 지붕의 높이가 각각 다르고, 정면 처마의 모양이 곡선인 점이다. 입면은 정면의 블록 형태의 석재마감을 제외하고 모두 붉은 벽돌로 마감되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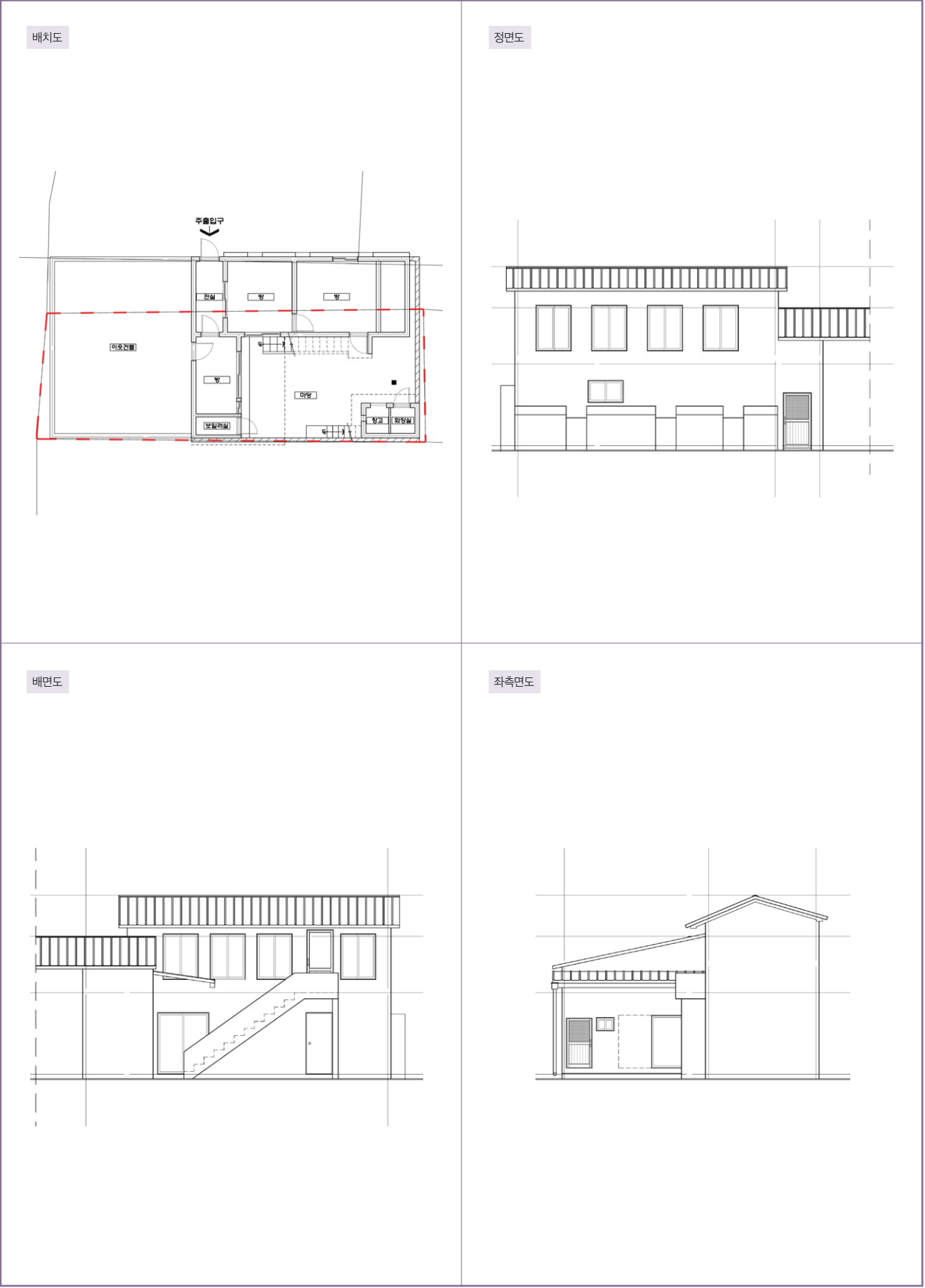
정면도



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33.06㎡

건립년도
1954년

이전에 국수공장의 용도로 지어졌으나 현재 1층은 가정집, 2층은 비워져 있다. 건물의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전실이 있는데, 양 옆 건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전실 왼쪽의 가정집으로 통하는 문 또는 전실 맞은편 방으로 안마당이 통한다. 외부 부속사를 화장실로 따로 두었으며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출입할 수 있다. 2층 계단참은 1층 가정집 방문의 처마로 이용된다. 1층은 실 1개 주방으로 구성되었다. 건물의 정면 창문 아래로 사선의 돌출된 부분이 입면적 특징이다.



장대동 277-25(유성대로 736번길 12-1) : 주거시설

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건축면적 90.25㎡

건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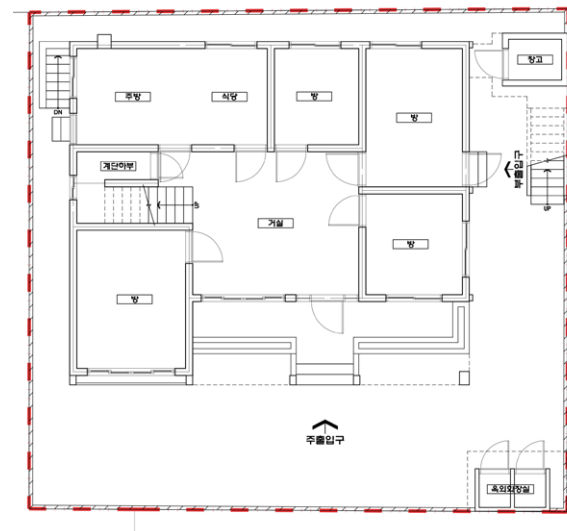
1984년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1층은 할아버지가, 2층은 아들부부와 손자가 거주하고 있다. 계단을 올라오면 1층 주출입구 양옆으로 발코니가 있는데 돌출된 난간의 일부를 작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1층은 거실을 중심으로 방 4개와 일체형인 주방과 식당, 2층으로 향하는 계단실이 있다.

2층으로 오르는 외부 계단의 하부를 부속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의 발코니가 2층의 진출입로로 사용된다. 2층은 주방, 화장실, 방 3개로 구성되었다. 사각형에 가까운 아치형태의 벽돌 마감이 입면적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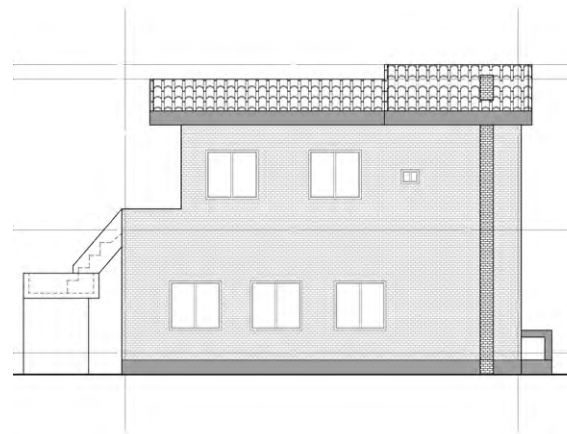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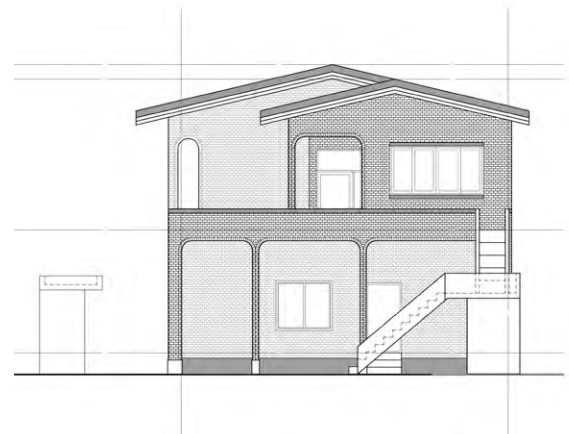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장대동 191-38(유성대로 720번길 57-10) : 고모네집

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82.80㎡

건립년도

1981년

2층 라멘조 상가건물로 1층 점포로 사용되었다가 최근까지 근방에서 오래된 맛집이었던 식당(고모네집)이 운영되었었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

1층 식당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좌측에 주방 및 보조주방, 오른쪽은 식당, 화장실, 정면은 방의 형태인 식당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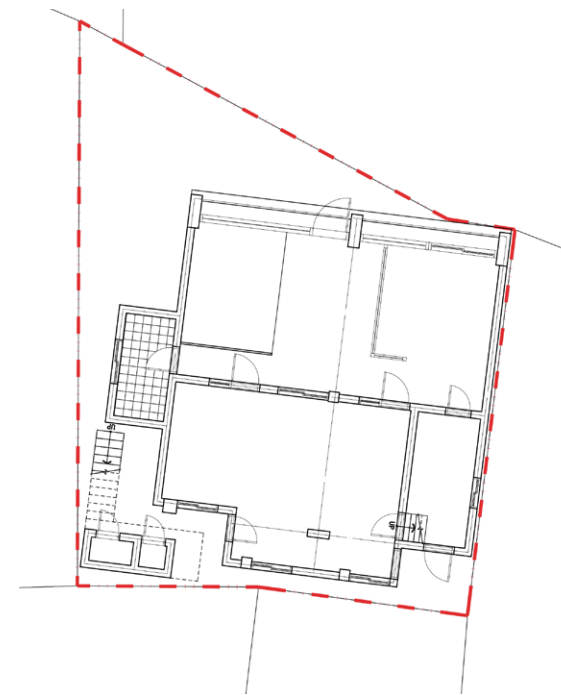
2층은 오른편으로 분리된 대문을 통해 부속사로 이용되는 건물의 지붕 슬라브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참이 된다. 주택으로 현관 바로 거실, 거실 좌우측으로 방2개 전면에 1개로 총 세 개와 주방 화장실로 구성된다.

건물의 정면 및 배면은 건물의 마감과 동일한 벽이 박공지붕의 끝선만큼 올라와 있으며, 좌우측면의 입면에서 박공형태의 지붕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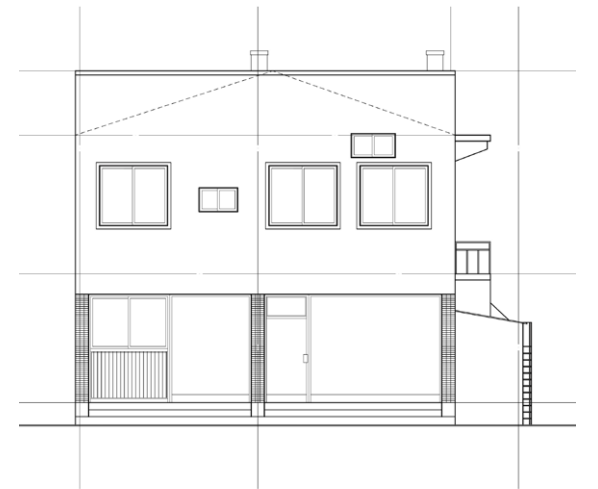
입면 마감은 전면 1층 기둥은 붉은 타일, 2층은 하얀색 페인트, 측면과 배면은 붉은 벽돌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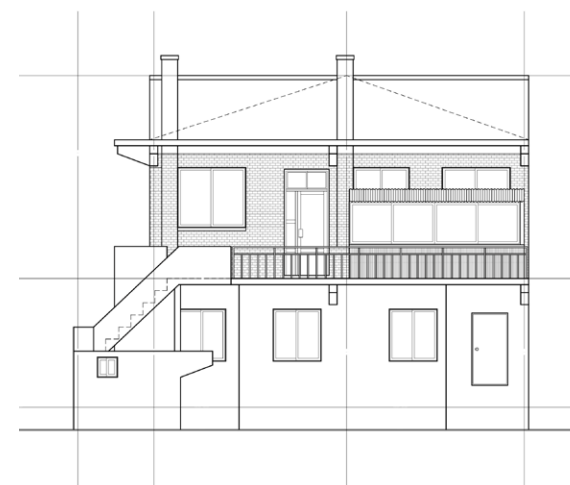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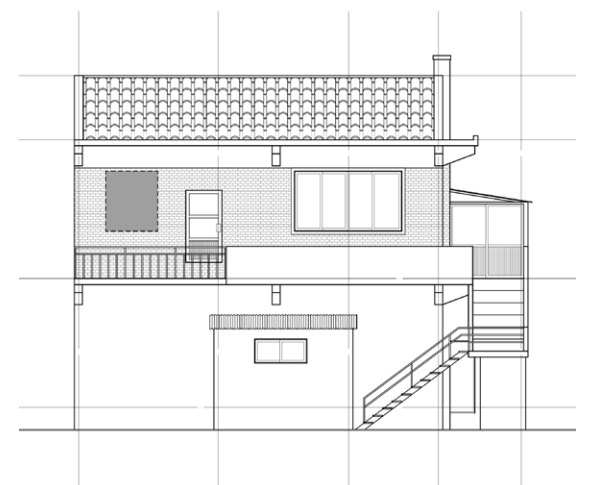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10

장대동 11-35(유성대로 720번길 54) : 향미원

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44.89㎡

건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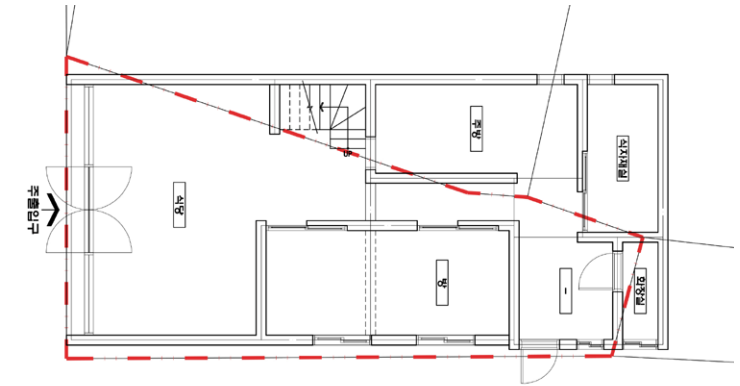
1977년

맛벽을 이루어 지어진 시장가로의 건물들 사이에 외건물로 지어진 상가건물이다. 처음 가로에 지어진 기와집으로 이사 온 부부는 시장 거리가 형성됨에 따라 2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로 한다. 1층을 중국집으로, 2층을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건물을 지었다. 평면상으로 1층 식당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까지만 가로에서 보이는 높이로 세워졌고 이후 주방, 식자재실을 기준으로 레벨에 차이를 두어 계단형 좌·우측 입면을 볼 수 있다.

주인 할머니께서 서실로 사용하시는 2층 작은 방은 자녀가 생기며 따로 생활할 방이 필요해 이후 증축하였다. 그 외의 옥상 공간은 할머니의 또 다른 취미인 다육이를 키우는 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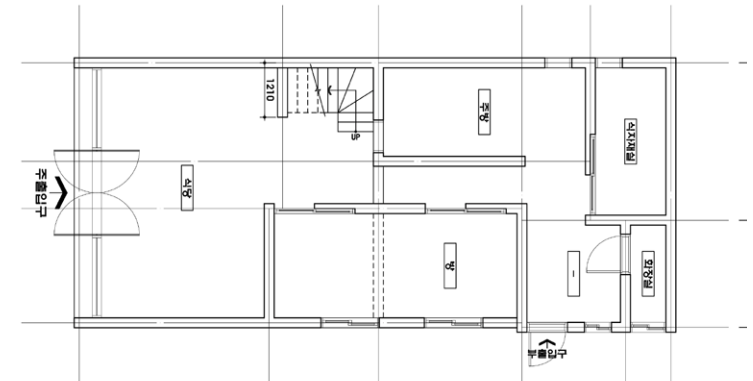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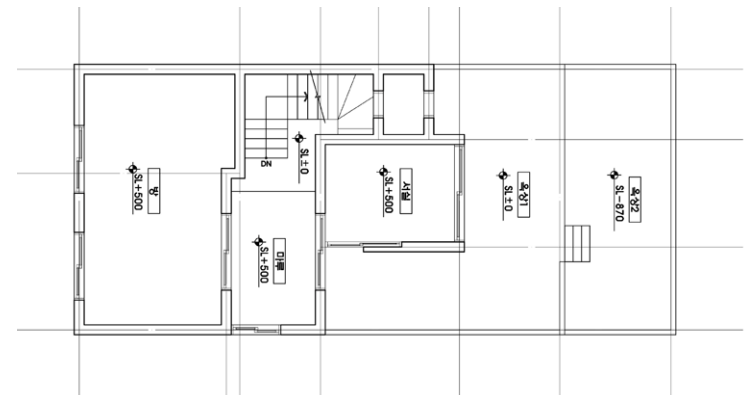
정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장대동 역사 및 변천과정

민속(구술채록) 분야

1. 지명의 유래
2. 유성시장 풍속
3. 장대동 유성시장 내력

1. 지명의 유래

장대동(場垌洞)

장대동은 유성천을 경계로 동남쪽에 봉명동, 남서쪽에 구암동과 면해 있고, 서쪽에 노은동, 북동쪽에 궁동, 북쪽으로 죽동과 접해있다.

장대場垌 이름은 ‘시장터’를 한자로 표기한 데서 나온 것이다.

꼭두배 [마을]

동자미 북쪽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다.

구암교 [다리]

유성천을 사이에 두고 장대동과 구암동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구암교 북쪽 네거리를 구암교사거리라고 부른다.

동자동(童子洞) [마을]

동자미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동자미·1(동잠, 동자동) [마을]

동자미 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유성초등학교가 있다.

동자미·2(동자산) [산]

장터 북서쪽에 있는 낮은 산이다. 여기에서 ‘동자童子’는 어린 소년을 뜻한다. 산의 형국에서 ‘동자’란 이름이 유래하였다. 곧 이곳 야산에 “선동이 꽃을 따는 형상의 선동채화형仙童採花形”명당이 있다고 한다.

전하기를, “옛날 어떤 지관이 구암동과 노은동의 경계에 있는 왕가봉王駕峰에 올라 이곳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산줄기 끝에 선동의 집仙童之宅이 있다고 말했다. 그 뒤로 이 산의 이름이 ‘동자산’ 또는 ‘동자미’가 되었다.”고 한다.

동자미는 달리 마을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동자산(童子山) [산]

동자미의 다른 이름이다.

동잠(東岑) [마을]

동자미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유성교(儒城橋) [다리]

장터와 봉명동 탕가리 사이 유성천에 있는 다리이다.

유성초등학교 [학교]

장대동 동자미산의 동쪽에 있다.

유성인터체인지(IC) [거리]

장대동 동자미 마을 북쪽에 있다.

유성장터 [터]

장대동 동자미 마을 남쪽으로부터 남동쪽, 동쪽 일대에 분포한다.

장대리(場垌里) [마을]

장대리란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폐 때에 만들어졌다. 이때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동잠리東岑里, 유성리儒城里, 동자동童子洞, 중봉리中峰里, 구암리九岩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대리場垌里라 하고 대전군 유성면儒城面에 편입시켰다. 이후로 장대리는 이 일대 여러 마을을 아우르는 대표 이름이 되었다.

장대교 [다리]

구암교와 유성교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유성시장 기름집, 덕명이용원 남쪽 유성천에 위치한다.

장대들 [들]

유성초등학교 북쪽 일대에 분포한 들이다. 지금은 도시개발로 ‘월드컵패밀리타운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다.

중봉(中峯) [마을]

장터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호미다리-보 [보]

호미다릿들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토지개발이 이루어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호미다릿-들 [들]

동자미 북쪽에 있는 들이다. 지금의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북쪽에 이웃한 지역이다.

황촌(黃村) [마을]

동자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전쟁기에 황해도 사람들이 피난 와서 정착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을 ‘계명촌’이라고 불렀다.

2. 유성시장 풍속

유성시장을 조사하면서 시장 일대 상인들 대부분이 전래 세시 풍속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보았다. 설날부터 정월보름, 이월 초하루, 사월초파일, 단오, 유두, 칠석, 백중, 팔월보름, 시월상 달, 동지설달에 이르는 제반 풍속을 잊고 살았다. 다수의 상인들이 설날과 추석 정도를 쉬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늘 시장에 나와 숙명처럼 장사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날그날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마치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가게에 나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성시장 세시풍속 조사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사전적 의미의 세시풍속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시歲時와 관계없이 비록 소수 사례나마 유성시장에서 이루어진 옛 풍속 사례를 모아 기록하기로 한다.

지신밟기

예로부터 정월 보름날에 지신밟기를 하였다. 200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풍물패를 꾸렸다. 당시 상인 가운데 풍물을 잘 치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이때의 풍물패원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지신밟기를] 했지요. 했어요. 여기 으르신들이. 옛날에. 으르신들이 했어요. (조: 그게 언제 적일까요?) 한 이십년 전. 그 때까 지두 저기 □□아저씨하구 □□이 아버지하고, 한 이십년 전까 지는 했어요. (조: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예. 예.[서장만]”

지신밟기는 해당 가정의 터를 밟아 복을 취하려는 전래 풍속이다. 여기에서 ‘터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머무는 가

신家神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말한다. 잘 알려진 가신으로 터주, 성주, 조왕, 용왕 등이 있다. 이 외에 가신신앙에 신심이 깊은 이들은 제석, 삼신, 칠성, 조상, 곡신, 업신 등을 함께 섬겼다.

일반적으로 지신밟기에서는 터주, 성주, 조왕, 용왕이 중심이 된다. 풍물패는 개개 가정에 들어가 터주가 머무는 장독대와 마루나 대청의 성주전, 부엌의 조왕전, 우물가의 용왕전에서 풍장을 울리며 덕담을 한다. 비나리라고도 불리는 이 고사덕담은 상쇠가 맡아 한다. 내용인즉 상쇠가 해당 신을 거명하며 그들이 맡고 있는 재복, 건강, 식복 등을 기원한다. 이렇게 풍물패의 기원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가정의 주부가 상 위에 쌀을 올려놓고 비손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음식이나 술을 준비하여 풍물패에게 대접한다.

“[유성시장 풍물이] 무지막지 했어요. 지신밟기하고 사거리 이런 데서 크게 했어요. 떡 해놓고 막 옛날 풍속 그대로 했죠. (조: 떡 찌놓고 고사도 지내고?) 예.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같은 거 놓고 동네 안정 기원도 해주고.[서장만]”

한편, 유성시장의 주민 자체 지신밟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행사를 주도하거나 풍물을 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대 풍물패

주민 자체 풍물패가 사라지면서 충남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지신밟기를 해주었다. 이 무렵은 2010년 전후로 추정된다. 제보자들 대부분이 ‘한 십년 전 정도’에 학생들이 지신밟기를 하였다고 증언한다.

“충대 학생들이 한 거는 한 십년, 한 십년 전 정도 돼요. 충대 학생들도 [장터] 여기서 풍물놀이 하구, 집집마다 다니매. 국악 애들이 와서 했어요. 보름날 전날. (조: 정월 열나흘 날.) 예. 예. 와가지구 저녁에 여기 동네 다 집집마다 해주구 그랬어요.[이세하]”

일반적으로 지신밟기는 정월대보름 이전에 시행된다. 지문에는 충남대 학생들의 유성시장 지신밟기가 정월 열나흘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지문의 ‘국악 애들’은 충남대 풍물 동아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풍물패를 이어 우금치 단원들도 유성시장에서 풍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충대 학생들이 했구, 근디 그러구는 그 다음해 뱃 년은 우금치, 우금치들이 와서 집집마다 해줬어. 돈 주고, 쌀 이르게 해 놓구.[오희득]”

여기에 등장하는 마당극패 우금치는 전문 풍물단이다. 이들 전문 풍물단이 유성시장에서 지신밟기를 하였음이 보인다. 이들 충남대 풍물 동아리와 우금치에 대한 유성시장 주민들의 기억은 매우 긍정적이다.

“자~알 치지. 충대 학생도 잘 쳤어. 그 사람들이 와서 항시 쳤지. 여기 와서 항시 쳐 줬어. 개들도 오기만 하믄 뭐, 할아버지 놀음도 잘 하구, 담뱃대 물고도 잘 하구, 자~알 했지.[오희득]”

근래엔 이와 같은 지신밟기가 중단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 중단된 것으로 전한다.

유성시장 정월고사

예로부터 유성시장에 정월고사가 전래하였다. 일종의 정초 안택고사처럼 시장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고사였다. 상인들은 장날 비와 관련된 유성시장의 내력과 연계하여 정월고사는 반드시 지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월고사를 지내는 장소는 지금의 군산상회 앞 네거리이다. 이 네거리에는 보문·대전기물점과 이불가게 등이 접해있다.

상인들은 고사를 지내기 위에 이 네 거리에 큰 상을 놓았다. 그

리고 준비한 제물을 상 위에 진설하였다. 제물은 떡시루, 돼지 머리, 과일, 복어, 술 등이다. 이들 제물을 진설한 뒤 제관이 앞으로 나와 술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고사를 지내는 이유에 대해 이남식은 “여기 비 온다고 여기서 정월달이은 푸지게 고사를 지냈다.”고 증언한다. 단순한 듯하지만 장날이면 ‘비 온다.’고 하는 대목은 무게감을 갖는다.

예로부터 유성장날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한다. 사실 오늘날 4·9 장날도 비로 인해 조정된 것이다. 한국전쟁기 이전에는 유성장날이 5·10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장날이면 비가 많이 와서 장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비가 오면 손님들이 찾지 않고, 그러다보면 생선과 같은 상품은 폐기해야 했다. 이런 연유로 장날을 하루 당겨 조정하였다고 한다.

“사거리에서. 근디 몇 년 전부터 그거는 인저 안 해여. (조: 비 온다고 고사를 지내요? 비 오지 말라고?) 예. 비 오지 말라고 고사 지내는 거. 엄청이 푸지게 지냈는디, 돼지머리 삶여다 놓고, 그르케서 고사 지내고.[이남식]”

오래도록 유성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화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상인들은 정월고사를 통하여 한 해의 장날 강수 금지를 기원해 왔다.

고사를 지낼 당시 상인들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제관이 현주배례를 마치면 뒤이어 상인들이 하나 둘 상 앞으로 나와 술을 올렸다.

“남자들이 절하믄 거기다 돈덜 만원씩도 노코, 오만원도 노쿠, 그르케 해서 하지. (조: 그렇게 고사 지낼 때 장사하는 분들이 다 나오나요?) 다 나오지. 다 나오고, 나중이 춤덜도 추고.[이남식]”

지신밟기를 하던 무렵엔 고사를 지내고 개개 가게나 가정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였었다. 그러면 해당 가정이나 가게의 주인이 앞마당에 쌀이나 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사 및 지신밟기 관행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시장 씨름대회

유성시장 씨름대회는 한국전쟁 시기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송진현은 당시 씨름대회가 백중 때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씨름대회가 이루어진 장소는 지금의 유성장옥 주변이다. 이 무렵만 해도 지금처럼 유성장옥 터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때이다.

“[양 손으로 원을 그리며] 이리, 이러케 사람이 뚱그러케 메지요. ~중략~ 선수가 아니고 그때는 동네에서 신[센] 사람만 거시기 하는 거지. (조: 동네에서 힘 좀 쓴다?) 예.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조: 이긴 사람끼리 다시 붙고요?) 예. 그렇지. 이긴 사람이 토너먼트로, 이긴 사람이 붙는 거지.[송진현]”

위 지문은 당시 씨름판 현장의 모습과 씨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송진현은 당시 씨름대회에 송아지가 걸렸었다고 한다. 다만 당시 제보자의 나이가 10대인 까닭에 누가 송아지를 걸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씨름대회는 회가 거듭될수록 폭력적인 면이 나타났다. 시내 건달들이 참여하면서 넘어진 상대의 허리를 밟고 목을 조르는 등의 일이 있었다. 당시 이에 대해 “숨을 거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인 일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씨름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씨름대회 또한 중단되었다고 한다.

시장 윷놀이

유성시장에서의 윷놀이는 장날에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윷놀이 장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주로 소전에 인접한 곳이라고 한다. 평상시 윷놀이는 시장 상인이나 지인들끼리 편을 나누어 하였다.

“윷놀이는 저, 술내기 하고 돈내기 하고 막. (조: 남자 분들이요?) 예. 여자들은 없고 남자들이. 으르신들이. (조: 소전 한 옆에서?) 소전 따로 있구, 윷놀이 하는 디 따로 있구. 다 분야가 틀리지.[지영희]”

지문에서처럼 윷놀이에는 내기가 따랐다. 보편적인 내기는 술내기나 돈내기였다. 술내기의 경우 3판 2승과 같이 승률을 정하고 놀이를 하였다. 돈내기는 판 당 얼마씩 걸기도 하고 누가 먼저 몇 동을 뺐는가에 따라 금액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기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돈내기를 많이 하고 지인들끼리 만나면 술내기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한편 백중장과 같은 날에 시장 윷놀이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일등한테 소금 한 가마니 줬어. 윷 놀아서. (조: 그건 어디서 주관했어요?) 몰라. 동네사람인가? 모르지. 그걸 돈이 워서 나서 하는가는 모르지. 소금을 두 가마니, 한 가마니 ~중략~ 그 당시엔 큰돈이지.[송진현]”

제보자는 이러한 대회가 1950년도 이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한다. 제보자의 10대 청소년기 일이다. 따라서 제보자가 누가 주관했는지 자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회는 당시 시장 상인회가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로 씨름대회나 윷놀이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성천 물놀이

장대동 남쪽을 끼고 흐르는 물길을 유성천이라고 한다. 이 유성천에는 계룡산 자락에서 발원한 물이 흐른다. 곧 국립묘지를 사이에 두고 좌우의 하천에서 내려온 물이 국립묘지 앞에서 합수한 뒤 이곳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원은 동쪽으로 흘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남쪽 편에서 갑천과 합류한다.

1960년대 전후 유성천은 물이 매우 맑았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때로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 돌 틈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잡거나 족대, 어항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이 흔하였다.

“그 때는 [시내 바닥에 깔린] 돌도 좋았지. 거기서 목욕도 하구. 쪼그만 할 때 거기서 놓고 그랬지. 물고기도 [양 손을 돌 밑에 넣어 고기 잡는 시늉을 하며] 돌 밑에 붕어 같은 거, ~중략~ 돌 이르케 문대문 하얀 가루가 생기잖어. 그걸 막 [양 얼굴에 바르는 시늉을 하며] 여기다 칠하고 다니구 그랬어. (조: 어릴 때요?) 빨록새도 많고.[송진현]”

위 지문 내용은 제보자의 나이로 볼 때 광복 전후의 일이다. 당시 유성천의 물은 매우 맑았고 시내에 고운 모래가 많았다고 한다.

한편, 성인들은 유성천을 목욕하는 장소로 삼았다. 현 구암교

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성인 여자들이 목욕을 하였고 아래쪽 깊은 곳에서 남자들이 목욕을 하였다. 이러한 목욕은 한여름에 주로 이루어졌다. 온 몸이 땀으로 젖어있을 때 이곳에서의 목욕은 청량함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구암교 인근에는 둠벙도 있었다. 이 둠벙은 비교적 규모가 있어서 아이들의 여름철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 둠벙에 송판으로 된 문짝을 띄워 놓고 그 위에 올라 엮드린 채 양 손으로 노를 저으며 놀았다고 한다.

소풍과 오징어다리

유성시장 북쪽으로 건너편에 유성초등학교가 위치한다. 유성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설립되어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이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소풍 때가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장에 나와 소소한 군것질 거리를 구매했다. 도시락 가방에 군것질을 담아서 소풍 장소로 갔다.

“여기 유성시장 나오며는, 뭐 먹느냐면 오징어다리. 하하. 오백원 주면 오징어 다리 하나. 소풍 갈 때 그거 하나 사 갖구 가고. ~중략~ 맨날 그랬어유. 눈팔사탕하고. (조: 소풍 갈 때?) 이. 옛날에는 어렵잖아유? 사는 게 다 어려웠잖아유?[지영희]”

예전에는 구암동이나 봉명동 쪽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 시장골목을 경유해 학교에 갔다. 따라서 당시 어린이들에게 시장골목은 그리 낯설지 않은 장소이다. 굳이 소풍이 아니더라도 시장 안에 있는 가게에서 과자나 사탕을 사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3. 장대동·유성시장 내력

장대동은 온천2동에 속한다. 백제 때 노사지현奴斯只縣에 포함되었고, 신라 때는 비풍군比豐郡의 영현인 유성현儒城縣에 속했다. 고려 때는 공주부公州府에 처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공주군公州郡에 속하였다. 조선 말(고종 32, 1895)에는 공주군 현내면縣內面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폐 때에 동잠리東岑里, 유성리儒城里, 동자동童子洞, 중봉리中峰里, 구암리九岩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대리場垞里라 하고 대전군 유성면儒城面에 편입시켰다.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됨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3일 유성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유성읍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 8월 15일 대전시 구역확장에 따라 이곳은 대전시 중구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4년 7월 1일 대전시 직할 유성출장소의 관할지역이 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유성구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1995년 1월 1일 대전직할시가 대전광역시로 개칭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 사료를 통해 본 유성과 장대동

사료를 통해 본 장대동 관련 기록은 “온천溫泉”에 관한 내용이다. 『고려사』지리지에 따르면 유성현儒城縣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기록하고 있다.

“원래 백제의 노사지현奴斯只縣인데 ~중략~ 고려에 와서도 명 칭을 그대로 부르면서 본주에 소속시켰던 바 온천이 있다.”

『고려사』의 발간이 15세기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오백년 그 이전부터 유성온천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6세기 초반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유성온천에 관 한 기록이 보인다. 본서의 산천조에 유성온천이,

“유성현 동쪽 3리에 있다. 조선 태조가 계룡산에 터를 잡으려 고 할 때와 태종이 임실현任實縣에서 강무講武¹를 할 때, 모두 여기에 와서 목욕을 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곧 임금이 특별히 행차하여 휴양할 정도로 유 성온천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18세기 장대동 인구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757 ~ 1765년 사이에 각 읍의 읍지를 모 아 성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풍부하고 비 교적 상세하다.

장대동과 관련하여 『여지도서』방리조坊里條에 다음과 같은 기 록이 있다.

“동자산리는 읍치와 50리의 거리에 있고 편호 64, 인구 남 135 명, 여 137명이다.”

여기에서 동자산리童子山里는 장대동의 옛 이름이다. 동자산은

¹ 사냥하는 군사연습

지금의 유성초등학교 서북쪽 뒷산이며, 고속도로 유성IC 일대 의 아산이기도 하다. 이 산을 동자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산 의 형국이 선동仙童을 닮았다는 풍수설화에서 비롯되었다. 부 연하면 옛날 지관이 왕가봉에서 이 산을 내려다보고는 ‘선동지 택仙童之宅’의 자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이 이 산을 ‘동자산’ 또는 ‘동자마’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 아래 주거가 들어서면서 마을 이름도 ‘동자산’이 되었다.

『여지도서』가 제작되던 시기인 18세기 중반에 동자산 마을은 인근에서 비교적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제시한 편 호 64호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늘날의 농촌과 비교해 도 비교적 규모 있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18세기 당시 현내면 마을과 인구를 다룬 『여지도서』의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면명	마을명	읍치와의 거리	편호	인구(남)	인구(여)
공주목 (公州牧) 현내면 (縣內面)	동자산리 (童子山里)	50리	64	135	137
	덕미현리 (德美峴里)	55리	51	79	91
	창리(倉里)	50리	39	61	63
	가둔리(加遼里)	50리	58	97	102
	기은곡리 (耆隱谷里)	60리	34	56	62
	화산리(花山里)	55리	10	10	17
소 계			256	438	472

표 1. 현내면 편호

3) 유성장터 의병봉기

유성장터는 의병의 봉기 현장으로도 유명하다.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장대동 유성시장 <장터공원> 내부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 전문을 옮긴다.

<乙未義兵의 효시 儒城義兵事蹟碑>

이곳 장대동은 유성을 비롯한 대전 일대의 사민(士民)들이 을 미사변으로 시해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국에서 가 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역사적 현장이다. 1895년 9월 18일 진 잠 현감을 지낸 문석봉(문석봉(文錫鳳))이 국모의 원수를 갚 자는 국수보복론(國讐報復論)과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고려사』56, 지10, 지리1, 양양도 공주 유성현조

죽음으로써 보복한다는 주옥신사(主辱臣死)의 정신에 입각 하여 민영환과 송근수, 신응조 등 중신들의 찬동을 얻어 옥천 의 오형덕, 공주의 김문주, 회덕의 송도순 등 지방 사족들과 함께 유성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유성장터에서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회덕현 무기고를 급습하여 무장하고, 진잠과 공암을 거쳐 공주의 와야동에서 관군과 전투를 벌였다. 의병들은 왕촌 일대로 피신하였다가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의병장 문석봉이 옥고의 후유증으로 순 국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성의병은 을미 의병의 효시로서 단발령 공포 후 전국적으로 의병봉기를 촉발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성의거는 일제에 맞서 이 지역의 선비와 민중들이 함께 분 기했던 고귀한 투쟁의 역사이다. 여기에 비석을 세움은 유성 의병의 사적을 후세에 알려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 지 않으며 백여 년 전 유성의병의 기개가 우리 후손들에게 길 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004년 9월 18일

나라의 광복을 이루기 위해 만세를 불렀던 곳도 유성장터이다. 유성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6일에 있었다. 당시 이상수, 이권수 형제가 지족리 자택에서 커다란 태극기를 만들 었다. 그들은 이것을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게양하였다. 그리 고 작은 태극기 17본을 만들어 3월 16일 유성시장에 가지고 나 가 장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어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만 세!”를 외치자고 제안하였다. 이때 장을 보러 온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여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한다. 이처 럼 유성시장은 기미(1919)년 대전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4) 유성시장의 변천

이 항목은 유성시장에서 장사를 해 온 상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꾸민다. 곧 과거 그들이 거래하던 상품, 활동 공간, 성공과 실패, 다양한 경험담, 시장의 변화 등 살아오면서 겪은 체험을 토대로 여기에 정리한다. 다만 제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하기에 내용 가운데 간혹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기록은 소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5·10에서 4·9장으로 바뀐 사연

유성시장의 장날은 4일과 9일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성시장의 장날이 5일과 10일이었다. 대개 한 번 정해진 장날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유성장날은 한국전쟁 이후 바뀐 것으로 조사된다.

“그 전이는 10일, 5일 장 췄었거든. 근디 그 전에 와요. 이 비가 매일 오고, 장날 마두 오는 겨. 비가. 그래서 바뀌었어. (조: 그 게 언제적 예기예요?) 사변 나구니까, 육이오 뒤에. (조: 확실해요?) 아, 배겼어요.[송진현]”

송진현은 80대 후반의 장대동 토박이 주민이다. 따라서 유성시장의 내력에 누구보다 밝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전에는 유성장날이 5·10일 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무렵 장날만 되면 비가 내렸다. 마치 예약이라도 된 듯 장날이면 비가 내려 장을 망쳤다. 특히 여름철의 비는 생선이나 야채 등 판매를 위해 준비한 상품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생선이구 뭐구 가마니루 왔어. 썩은 생선이구 뭐구. (조: 가마니에 담아서 생선을 가지고 왔다고요?) 생선 가지구 와서 이 찰넝쿨을, 지금 같이 지푸라기나 찰넝쿨로 하지, 지금 같이 나이롱 끈으루 안 햐. 그때는 오장, 생선 장사는 미리 왔어. 장전날. 그라든 [생선을 엮어] 빨래줄에다 쪽 널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생선을, 명태, 생태.[송진현]”

5·10일 장이 서던 당시 장날 팔기 위한 상품이 하루 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생선의 경우 가마니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들 상품을 팔려고 풀어놓으면 어김없이 비가 왔다. 그러면 지문에서처럼 걸어놓은 생선이 비에 맞아 신선도가 떨어졌다. 여기에 비가 오면 장 보러 오는 손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상품은 팔리지 않고, 비에 맞았으니 상하기

십상이었다.

이런 연유로 ‘돌부리’ 관습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송진현은 이 돌부리를 “여럿이 돈을 내서 같이 먹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이 안 서믄, 장이 깨지믄, 그때는 장이[장날에]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깨무는 돌부리를 한다고. (조: 누가요?) 그 거, 그 사람들끼리. (조: 상인들끼리요?) 어. 상인들끼리. 그때는 상어새끼 이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지저먹고, ‘돌부리 한다.’고 했지.[송진현]”

지문에서처럼 상인들끼리 돈을 거두어 썬 값에 생선을 사고 함께 나누어 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전의 유성시장 장날은 유난히 비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된다. 그리하여 상인들이 함께 숙의한 끝에 장날을 옮기기로 결정한다. 5·10일 장을 하루 당겨 4·9일 장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장날을 옮긴 뒤 비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고 한다. 오늘날 4·9일 유성장날이 이러한 내력을 품고 있다.

도부장사

시장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은 같은 장소에서 매일 물건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자본도 영세한 상인도 적지 않다. 특히 예전에는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장사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작은 양의 물건이나 상품을 받아 방문판매를 하였다. 옛날엔 이들을 도부장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도부^{도부}’란 상인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도부장사가 가지고 거래하는 물품은 다양하였다. 한 예로 여성들의 화장품, 약세사리를 비롯해 바느질 도구, 심지어 패물 등의 물품을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재료이다. 소소하게는 두부나 묵을 비롯해 생선,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 순대, 선지 등 다양한 도부장사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하루 몇 십리를 걸어 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그리고 물건을 판 뒤 다시 그 값으로 곡식 등의 무거운 물건을 받아 돌아왔다. 종일토록 무거운 물건을 이고 다녀야 하는 것이니 아래에 사례를 옮긴다.

“쌀 베나[별로] 없어. 보리쌀, 콩 뭐, 팥,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때는 현찰이 베나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구 그거슬 그냥, 거기서 참, 다 팔어. 한 판내기 다 팔구서는, 또 한 판내기가 되는 거여. 곡숙[곡식]이. (청중: 그르치. 헤~.) 그러믄 또 그눔을 되집고 이고는, 갈 때도 이고 오야 되구, 올 때도 이고 오야 되고 그랴.[한옥녀]”

위 지문에 등장하는 한씨는 20대 초반에 새우젓 도부장사를 하였다. 남편과 함께 도시로 나왔으나 마땅한 일감을 찾지 못하여 도부장사를 선택하였다. 그가 도부장사를 택한 또 다른 이유는 자본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곧 새우젓을 파는 상인에게 외상으로 한 동이의 새우젓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상인의 관대한 처사로 볼 수 있으나 1950년대 사람 간 신뢰의 한 풍속도로 이해된다.

지문의 내용은 ‘새우젓을 팔고 나니 곡식을 주었다. 가지고 오는데 무거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대부분의 도부장사가 겪는 체험담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받아온 곡식은 별도로 분류해 두었다가 일정한 양이 쌓이면 시장에 나가 판매한다.

“지금 같이 순댓집이 없었어요. 그라니까 그때는 이고 땡기면서 팔었지. (청중: 가정집에 가 팔었어. 가정집에요.) ~중략~ 이름은 없지. 그냥 ‘누구 엄마’라고 하지.[송진현]”

두 번째 지문은 순대 도부장사에 관한 구술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순대 도부장사는 다라에 순대나 선지 등을 이고 다니면서 가정집을 찾아다녔다. 그리고는 해당 가정의 마루에 앉아서 흥정을 하였다. 이렇게 흥정이 이루어지면 순대나 선지를 받고 곡식을 건네는 방식으로 거래를 갈무리한다. 또 다른 화자에 의하면,

“옛날에 정육점을 푸줏간이라고 하였다. 푸줏간에서 소를 도살하면 고기를 가게에서 판다. 또 여자들이 동네로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다.[주○○]”

고 한다. 그는 이럴 경우 부부가 가게를 한다고도 첨언하였다. 그런데 쇠고기를 가지고 도부장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의 내장이나 선지 등은 도부장사가 흔히 취급하던 품목이다. 우선 이들 부산물은 고기에 비해 값이 싼다. 또 쉽게 상할 수 있는 부위이기에 빠른 판매가 필요하였다.

시장 음식

5·60년대 유성시장의 대표적인 음식은 국밥과 국수, 팔죽 등이었다. 국밥이라고 할 때 지금처럼 돼지국밥, 선지국밥, 쇠머리국밥 등으로 세분화 된 것도 아니었다. 가마솥에 선지와 무, 소 내장 등을 넣고 펄펄 끓인 것을 ‘국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국밥을 만들어 파는 이들은 대부분 정육점을 운영하는 상인이었다. 곧 이들은 소를 도살하고 난 뒤 고기를 제외한 부산물을 가지고 국을 끓였다. 그리고는 국에 밥 한 덩이를 말아서 국밥으로 팔았다.

“송: 무 느쿠 방안에서 이, 가마솥 걸구. 그냥 소두방만……. 주; 지금 같이 뗏 인분이 없구, 그때는 보문, 내장, 거 육간 하는 사람들이 내장 같은 거 많이 해가지구 삶구 해서, “밥 달라.”구 하근 밥 한 덩어리 해가지구 [가마솥에 삶은] 그눔 떠서 주구, 떠서 주구, 그래서 먹구 그랬지.[송○, 주○]”

당시 국밥집은 간판도 없었다고 한다. 육간이라 부르는 정육점에 이웃하여 국밥집이 있었다.

유성시장의 다른 대표음식 가운데 하나가 국수이다. 국수는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또 먹기도 편하여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였다. 특히 오일장이 서면 노점이 형성되고 이 노점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국수집이었다. 점심 때가 되면 장 보러 온 이들과 시장 사람들이 이 노점의 국수가게에 몰려들어 식사를 하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수가게에서 팔죽을 겸하여 팔았다고 한다. 그는 팔죽 또한 별미여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안에 골목이 있어유. 거기 나무전이 있었어. 이 장옥 끄트머리. 그 안에서 나무두 팔구, 거기서 국수두 팔구, 뗏두 팔구 다 거기서 했지. 옛날이는 식당마냥 다~ 들어가서 먹는 디두 없구, 좌판이서 조금씩 먹구, 서서두 먹구 그랬어. (조: 가게 이름도 없었겠네요?) 읍지. 가게 이름두 없어.[이남식]”

제보자는 1960년대 무렵부터 유성시장에서 장사를 해 온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유성 오일장이 매우 활성화되었었고 장날이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시장골목을 메웠다고 증언한다. 또 식사 때가 되면 으레 노점 국수집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한다. 2023년인 지금도 장날이면 유성시장의 노점 국수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국수가게에 몰려 식사를 한다. 근래엔 음식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졌다. 빈대떡, 떡볶이, 각종 전, 호떡, 닭튀김, 구운 통닭, 국화빵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옛 유성 도축장

과거 유성시장에 인근에 도축장이 있었다. 송진헌에 따르면 구암교 사거리에서 서편 장대삼거리 중간쯤에 있었다고 한다. 곧 지금의 고속도로 인근 하이웨이 주유소 주변이 옛 도축장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주: 저기에 있었어요. 주유소 있고 한 데, 그 안쪽으로? 송: 호남고속도로 굴[다리] 있는 옆에.[주○, 송○]”

이곳에 도축장이 조성된 데에는 유성시장과의 근접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축장에서 도살한 고기의 판매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 안에 가게를 둔 정육점에서 ‘소를 도축 의뢰한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또 다른 배경은 유성시장 안에 있었던 소전을 꼽을 수 있다. 시장 내부에 오일마다 소전이 형성되면서 도축업자들이 소를 구매하기 용이하였다. 업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소를 고르고 이를 도축하여 이윤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60년대 시장위치



유성시장
(아래로 유성천, 좌우로 도로를 따라 내부에 시장이 형성됨. 카카오톡 캡처)

2023년 현재 유성시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시장의 전체 모습은 삼각형을 이룬다. 서편은 구암교 네거리가 경계이고 동편은 유성교 교각일대가 경계이자 시장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북쪽은 유성고속버스 서쪽 대로 건너편과 S-에 주유소 언저리가 경계지이다. 대략 이러한 모양을 선으로 그어 획정하면 부정형 사다리꼴 모양이다.

1960년대 전후 유성시장은 현 유성시장의 축소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중심은 현 장대교에서 유성기름집, 덕성미곡상회, 유성장육, 시장정육점으로 이어진 시장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1960년대 유성시장 중심지역(카카오톡 캡처)

이 도로 오른편에는 유성장육이 있는데 이곳은 구청부지로 과거 오일장 상인들이 좌판을 벌인 곳이다. 그러다가 뒤에 기둥을 세워 오일장에서 가게로 사용되었고 뒤에 건물을 지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무렵 현 유성장육 동편은 대부분 전답이었다. 따라서 이 일대엔 시장이 조성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장대농협 자리 일대] 요기는 자리 없구 전부 다 논 밭여. 전수 다 논이에유. 이 뒤로는 다 논이에유. 여기 농협은 있었시유. 농협은 있구 이르게는디, [농협 서편 일대] 저 위께만 장이 좀 스구 그랬어유.[한옥녀]”

위 지문은 1960년대 유성시장을 토대로 도부장사를 했던 한옥녀의 증언이다. 도부장사로 시작한 그녀는 그 뒤 가게를 얻어 야채 장사를 하였고 뒤에 유성국수를 만들어 판매 및 도매를 하였다. 유성시장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그녀 또한 앞서 언

급한 유성시장기름집과 시장정육점 사이의 골목길 일대가 옛 시장의 중심지라고 한다.

곧 오일장 장날이 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기왕에 가게가 있어도 길가에 노점이 들어섰다. 그리고 일부 노점은 유성대로 720번길을 따라 유성교 인근에 이를 만큼 1960년대에도 오일장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었다.

소전

유성시장의 소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고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소전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소전은 본래 유성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 장소의 소전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되던 것이다. 이렇게 내려오던 소전이 광복 이후 지금의 장대교 남쪽으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소전 이전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 이는 소전이라는 공간이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장소이고 또 이전이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탓에 80대 이상의 관심 있는 이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전은 여겼었어. 여겼다가 땡겼지. [장대교 쪽을 가리키며] 저쪽에. (조: 여기가 어디죠?) 여기 사거리 지나서. [옆사람을 지목하며] 장채네 집 거기가 소전여. (청중: 초등학교 앞 그 골짜기 어딜 편디?) 응. (조: 지금 초등학교 있는 데가 옛날 소전이 있었어요?) 아뇨, 그 앞에. [초등학교] 가는 길에 있었어. 가는 길에.[송진헌]”

위 지문은 옛 소전이 유성초등학교 인근에 소전이 있었다는 증언이다. 소전을 옮기게 된 이유는 학교가 이웃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밀집, 소 울음소리로 인한 소란스러움, 소의 분노로 인한 냄새 등이 원인이 되어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소전은 지금의 장대교 남쪽으로 이전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현 <보물섬수산> 일대가 소전이었다고 한다. 이곳 소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 다수가 기억하고 있다.

“육십팔년 전이지. 68년 전에 여기루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와가지고서는 그 전에는 여기 난전예다가 그냥 좌판 펴 놓고 장사를 이르게 하고, [장대교 인근] 저쪽에 소전이 있고 여 망

둑 거기서두 장 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우요.[장태숙]”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시부모가 1955년도에 현 낙원떡집 자리로 이사를 왔는데 오일장에 난전이 서고 현 <보물섬수산> 자리에 소전이 있었다고 한다. 매 오일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나와 팔고 또 소를 사가는 시장이었다.

다만 소전이 없어진 시기는 알 수 없다. 도시개발과 맞물려 있는지 확실치 않으나 1970년대 들어와서 없어진 것으로 전한다.

소싸움

소전 한쪽에서 소싸움을 했다는 증언을 볼 수 있다. 동그런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소 두 마리를 놓은 뒤 싸움을 시켰다는 이야기다.

“옛날에는 유성에도 볼 것 많았잖아유. 소전이고 뭐, 소싸움이니 뭐, 이르게 가마솔 해놓고. 근데 지금은 볼 거 없어. (조: 소전요?) 소전 있었지유. 옛날에. 소싸움도 하고. ~종략~ [소싸움] 아, 그런 거 많이 했지유. 윗놀이도 하고. 유성시장은 그 거 알려줬었잖아유. 옛날에. (조: 소싸움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아~, 했어유. 옛날에. ~종략~ 그때가 국민학교 육학년 땡가? 했어유. 있었어유.[지영희]”

제보자는 유성 용반마을이 고향이다. 그녀는 어릴 때 용반마을에서 장대동에 위치한 유성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녔다. 그리고 장날이면 유성장에 나와 여러 구경거리를 즐겼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싸움이었다고 한다. 동그런 원 안에 소 두 마리가 있고 양쪽에 소 주인이 선 가운데 소싸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아~, 그럼유. 사람이 장대 같었는디, 그런 거……. (조: 사람이 뭐 같았다고요?) 사람이 만타구. (조: 장대 같았다?) 응. [원손으로 동그런 원을 그리며] 빼~엥 둘러서 구경하니께. (조: 아~.) 유성 장날은 그거 백이 없어유.[지영희]”

지문에 따를 때 소싸움 판 외곽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이 시기를 초등학교 육학년 때라고 한다. 제보자의 출생년도를 감안할 때 1968년 무렵으로 추산된다. 곧 유성시장의 소싸움이 벌어지던 시기를 이 무렵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나무전

우리나라에서 화목이 점차 줄어든 시기는 1980년대이다. 이 무렵을 기점으로 화목 아궁이에서 연탄 아궁이 또는 기름보일러 난방시설로 전환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 이전에는 대다수 가정에서 화목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 특히 1970년대 무렵만 해도 도시 농촌 가리지 않고 화목의 쓰임이 많았다.

화목의 수요가 많다보니 야산의 나무들이 남아나지 않았다. 마을에서 가까운 야산은 대부분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 특히 주인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못하는 야산은 대부분 민둥산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다보니 점차 멀리까지 가서 화목을 해 와야 했다. 이것이 대략 1960년대의 모습이다.

장대동 일대의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주변의 가까운 야산에서는 나무를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의 국립묘지 뒷산, 또는 계룡산 줄기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해왔다. 또 유성시장에서 나무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한 점차 집에서 먼 거리까지 나가 나무를 해다 팔았다.

“그 계룡산 저기잖어? 동학사 있잖어? 동학사까지, 그 남매탑까지 갔어. (조: 거기에서 나무를 해도 돼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동대, 생나무 막 끊어다가…….[송진현]”

위 지문은 동학사, 남매탑 인근까지 가서 나무를 해 왔다는 구술이다. 보통 나무를 해 올 때에는 단을 지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온다. 나무의 종류는 죽은 나무를 비롯해 생나무, 솔가루, 장작개비 등 다양하다.

“촌에서 나무 해다가 팔라구덜 나무 해다 노쿠. 팔라구. 솔가루. 이런 이러케 해서, [양팔을 크게 벌려 둥그런 원을 만들며] 그냥 둥~그러케 해서 묶어서 갖다 팔구. (조: 나무를 해서 판다고요?) 솔가루. 굵어다가. 그 전이는 이런 연탄이구, 속요곤로구 없잖아. 그래가지구 그거 고랭이에다가 땀잖아. 나무 사다가. [이남식]”

위 지문은 나무 가운데 솔가루에 대한 구술이다. 솔가루는 나무 아래이자 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굵어모은 것이다. 대개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야산에서 굵어모은 나무를

‘솔가루’로 표현한다. 바닥에 있는 나뭇잎을 갈퀴로 굵어모았다 는 뜻에서 이런 류의 나무를 갈퀴나무라고도 한다.

“여기 나무전 있었어. [유성천] 뚝에, 뚝에. 나무전. (청중: 개울가가 전부 나무전이었어. 조: 그 나무는 누가 사갔어요?) 시장 있는 사람이 사가지. 단도 [양팔을 60cm 가량 벌려 나뭇단의 두께를 표시하며] 이만큼 하니 깔끼[갈퀴]나무 같은 거. 지구 가문서. [일반인이] 장작 같은 거 한 짐씩 해 오면 그 사람들이, 나무장사들이 장작이루두 사.[송진현]”

유성시장의 나무전은 시장 남쪽에 걸쳐 있는 유성천 일대였다. 지금의 장대교 하천 독 일대가 옛 나무전이다.² 이 나무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장소에 나무를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 장에 찾아온 이들이나 나무장사가 나무를 사간다. 특히 장작 같이 드물게 나오는 나무는 나무장사가 선점하여 소매로 다시 되판다. 또 보다 수요가 많은 대전 시내의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문을 남기기도 한다.

“[나뭇질하는 시늉을 하며] 짹 난 거 물걸이라고 불렀어. 물걸이. 동대는 소나무 착착 쌓은 거를 동대. 동대는 소나무를 [양 손으로 지름 10cm 정도의 원형을 만들며] 이만큼 굵은 거를.[송진현]
[나뭇질하는 시늉을 하며] 말른 거, 나무에서 따는 건 삭조랭이라구 했어. 삭조랭이. 삭었다구 삭조랭이. 나무에서 따가지구 짊어지구.[주원호]”

물오른 나뭇가지를 베어서 시장에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 이러한 나무는 집안 한쪽에 일정한 기간 동안 쌓아둔다.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 말려서 땀감으로 사용한다. 제보자는 이러한 생나무를 ‘물걸이’라고 불렀다. 또 소나무 줄기와 가지를 잘라서 다발지은 나무를 ‘동대’라 하였고 마른 나뭇가지나 삭정이를 모아 다발진 것을 ‘삭조랑이’라고 하였다.

야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 몰래 벌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당 산에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키지 않게 조용히 나무를 베어야 했다.

“왕가봉 가서 우리 톱 소리 난다구, 실 감어가지구 [톱질하는 시늉을 하며] 소리 안 나게.[송진현]

² “저 소전거리. 고 나무전이었어. 그 뚝에.[송진현]”

아, 물 뷔 가매 톱질하는 건데, 뭐? 허허. 집 뒤 가서. 소리가 안 나요. (조: 힘이 더 들 것 같은데요? 뽉뽉해서.) 안 뽉뽉하지요. 헐겁지요. 더 연하지요. 지금은 몰라요. 애덜, 그런 거. [주원호]”

위 지문은 벌목하면서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사례이다. 톱에 실을 감아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데 쉽게 연상이 되지 않는다. 또 물을 부어가며 톱질을 하였다고 하는 것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떻게 소리 없이 나무를 베기 위해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무전에서 나무를 사면 본인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배달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배달하는 거리가 멀어 나무꾼이 고생을 하는 예도 있었다.

“시장 사람이 아니구, 먼 디 사람두, ‘집이 어디냐?’구 하믄, ‘집 조기.’라구 한다구. 저다 주야 되잖아. 짐을. 그라믄, ‘다 왔다.’구 하면서 십리, 이십리씩 가구 그란다.[김상의]
십리는 보통 저다 주지. 옛날에. 십리는 저다 주지.[주원호]”

이 지문은 옛 사람들의 거리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지게로 나뭇단을 짊어지고 십리 정도 이동하는 것을 일상적인 일로 보고 있다. 유성시장에서 비교적 먼 거리의 이동은 진잠이나 반석동, 탄동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무 값은] 쌀이 두 되, 서 되요. 그때.[송진현]
[옆사람을 쳐다보며] 두 되 못 받았을 걸? 두 되 받아?[주원호]
쌀이 두 되믄 보리쌀이……. 하여튼 나무하러 땀졌을 때,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는 시늉을 하며] 고구마, 찜밥이랑 [손으로 주먹만 한 크기를 시늉하며] 요거만큼씩 땀 개씩…….[송진현]”

1960년대 나무 값에 대한 구술이다. 구술 내용을 보면 제보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우선 시기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1960년대’라고 하는 질문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이미 60년 전후의 일이어서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송진현은 나무 한 짐에 쌀이 두되 정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단락은 나무 하러 갈 때에 가지고 간 음식에 대한 구술이다. 바구니에 ‘고구마나 찜밥을 싸갔다.’고 한다. 찜밥은 충청도에서 보통 누룽지를 뜻하는 방언이다. 그는 ‘찜밥을 굵어 주먹밥 모양으로 만든 뒤 이것을 가지고 나무하러 갔다.’고 한다.

물류 허브 유성시장

19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유성시장의 영향력은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은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 충남대학교, 국립묘지 현충원 등 유성 일대에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들 개발과 관련하여 유성시장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먹거리의 공급이다.

공사현장에는 대부분 식당이 조성되는데 이를 함바 또는 함바집이라고 한다. 이들 함바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간이식당으로 늘 일정한 식재료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들 식재료의 상당수가 유성시장을 통해서 공급되었다. 고기를 비롯해 쌀, 국수, 야채, 음료수 등 다양한 물품이 구매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곳의 공사현장이 생겨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이들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유통업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때로 함바의 주인이 시장에 나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오일장에 나와 노점상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하였다. 제보자 이남식은 ‘노점에 토란줄거리, 고구마줄거리, 무, 배추 등을 가져다 놓으면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갔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매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한다.

당시 유성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유통 활동을 한 가게가 <경북상회>, <기현상회> 등이다. 특히 기현상회는 연구단지 건설이 끝난 뒤에도 여러 연구소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해 왔다. 아울러 대전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해 대전 인근 공주지역 초등학교 식당에도 급식용 식재료를 공급하였다.

식재료 외에도 여러 물품이 유성시장을 통해 유통되었다. 시장 안에는 <보문기물>, <대전기물> 등 여러 기물가게가 있다. 이들 가게를 찾는 이들은 시장 인근의 주민들도 적지 않았지만 보령, 대천, 서산, 청양, 공주 지역 사람들이 많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전의 서편에 속한 충청도지역 주민들이 이 유성시장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원거리에서 찾아온 손님들은 대부분 대량구매를 하였다. 이들 원거리 손님들 대부분이 현지에서 소매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였던 것이다.

유성시장은 이상 소개한 물품 외에도 보일러, 농자재, 떡, 기름 등 다수 상품이 거래되던 곳이었다. 특히 가을이면 곡식을 비롯해 각종 채소, 양념류가 유성시장에 모이고 또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시선

1. 박정선
2. 시모코가와 쓰요시(SHIMOKOGAWA Tsuyoshi)
3. 심웅택(충남대학교 회화과 2학년 학생 협업)



예술가들의 시선

전시서문

지역리서치 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하였다.

참여 작가진은 유성시장의 곳곳을 돌아보며 장대B구역이 가진 오래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회화, 영상, 미디어, 사운드 등 작가만의 표현으로 시민과의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참여작가

박정선
시모코가와 쓰요시(SHIMOKOGAWA Tsuyoshi)
심웅택 *협업: 충남대학교 회화과 2학년 학생



설치 작품 동영상

예술활동 01 박정선



▶▶ 흥정소리1



▶▶ 흥정소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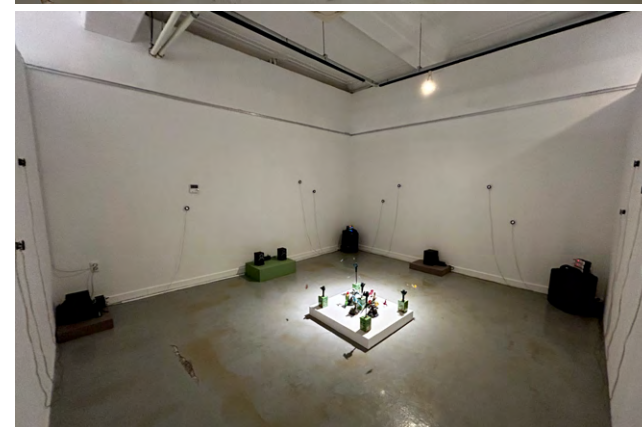


▶▶ 뽕적음악



▶▶ 국수집에서 만난 할머니 두분 이야기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는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과 이야기가 오고 가며, 계절에 따라 변하고, 활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하나의 에너지 장(場, Field)이 만들어진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무 때나 그 에너지를 만날 수는 없는 게 바로 장날인 것이다. 북적대는 사람과 물건들, 먹거리, 볼거리와 함께 그 장날의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다. 작품 <시장 소리>는 유성 장날의 다양한 소리를 채집하여 소리의 장(Field)으로 재구성한 사운드 설치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고 작은 스피커와 설치물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지금까지 보거나 맛보던 유성시장과는 다른 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유성시장의 소리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은 향후 재개발을 거쳐 새로운 상가로 대체될 유성장날을 그날의 소리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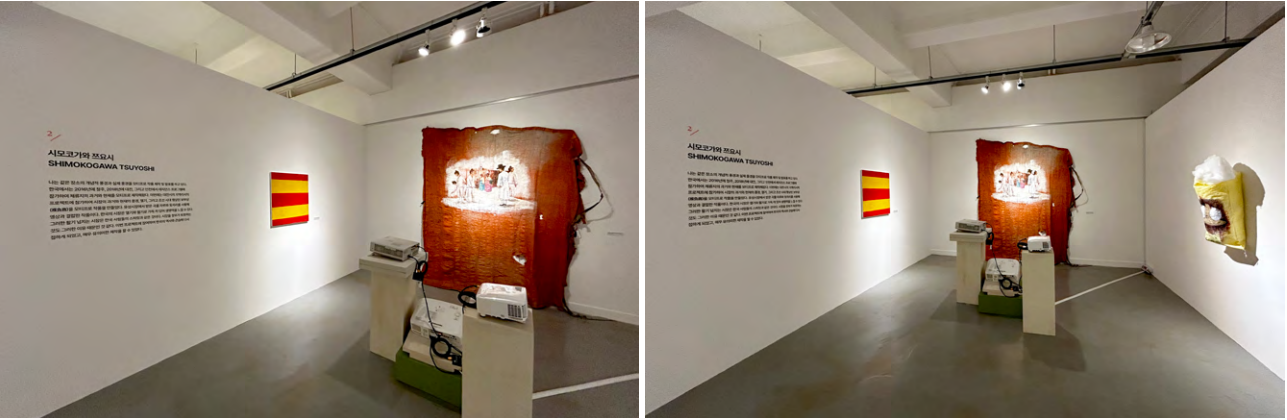
시모코가와 쓰요시

SHIMOKOGAWA Tsuyoshi

나는 같은 장소의 개념적 풍경과 실제 풍경을 모티프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에 청주, 2018년에 대전, 그리고 인천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체류지의 과거와 현재를 모티프로 제작해 왔다.

이번에는 대전시의 지역리서치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시장의 과거와 현재의 풍경, 열기, 그리고 조선시대 행상인 보부상(褸負商)을 모티프로 작품을 만들었다. 유성시장에서 받은 곡물 자루와 돛자리를 사용해 영상과 결합한 작품이다. 한국의 시장은 열기와 활기로 가득 차 있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활기 넘치는 시장은 한국 사람들의 스피릿과 같은 것이다. 시장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와 관습에 다시 접하게 되었고, 매우 의미있는 제작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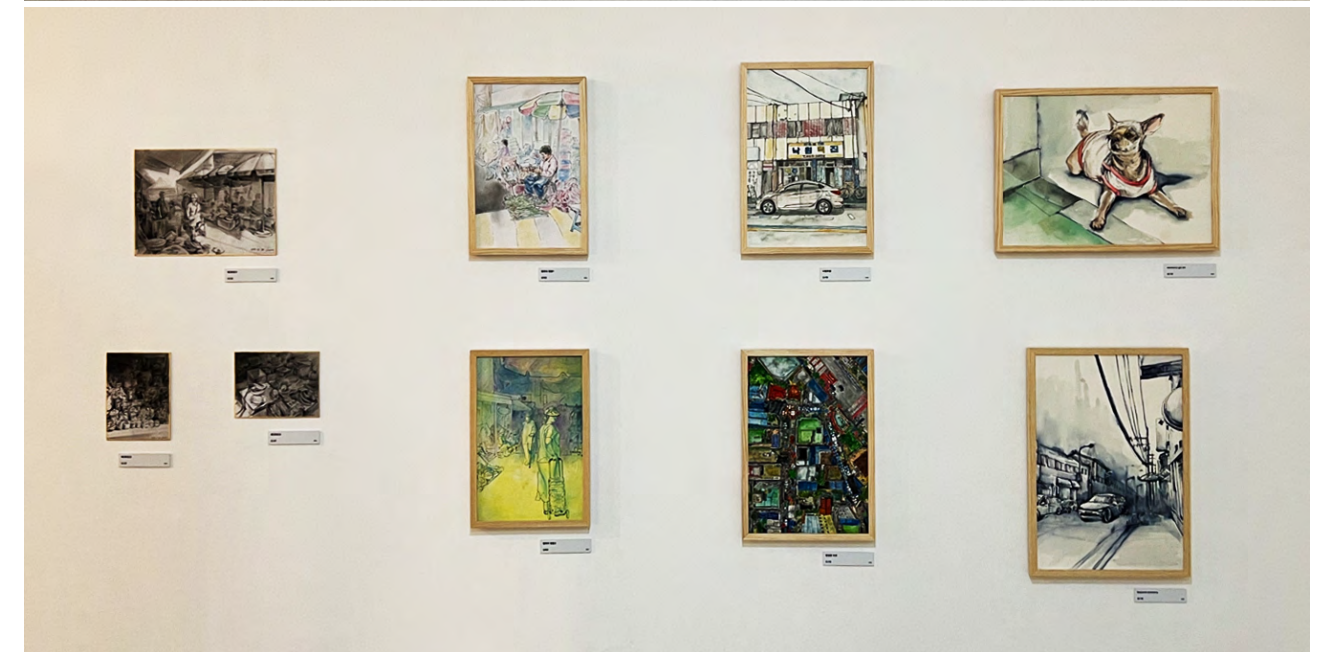


예술활동 03

충남대학교 회화과 2학년 학생참여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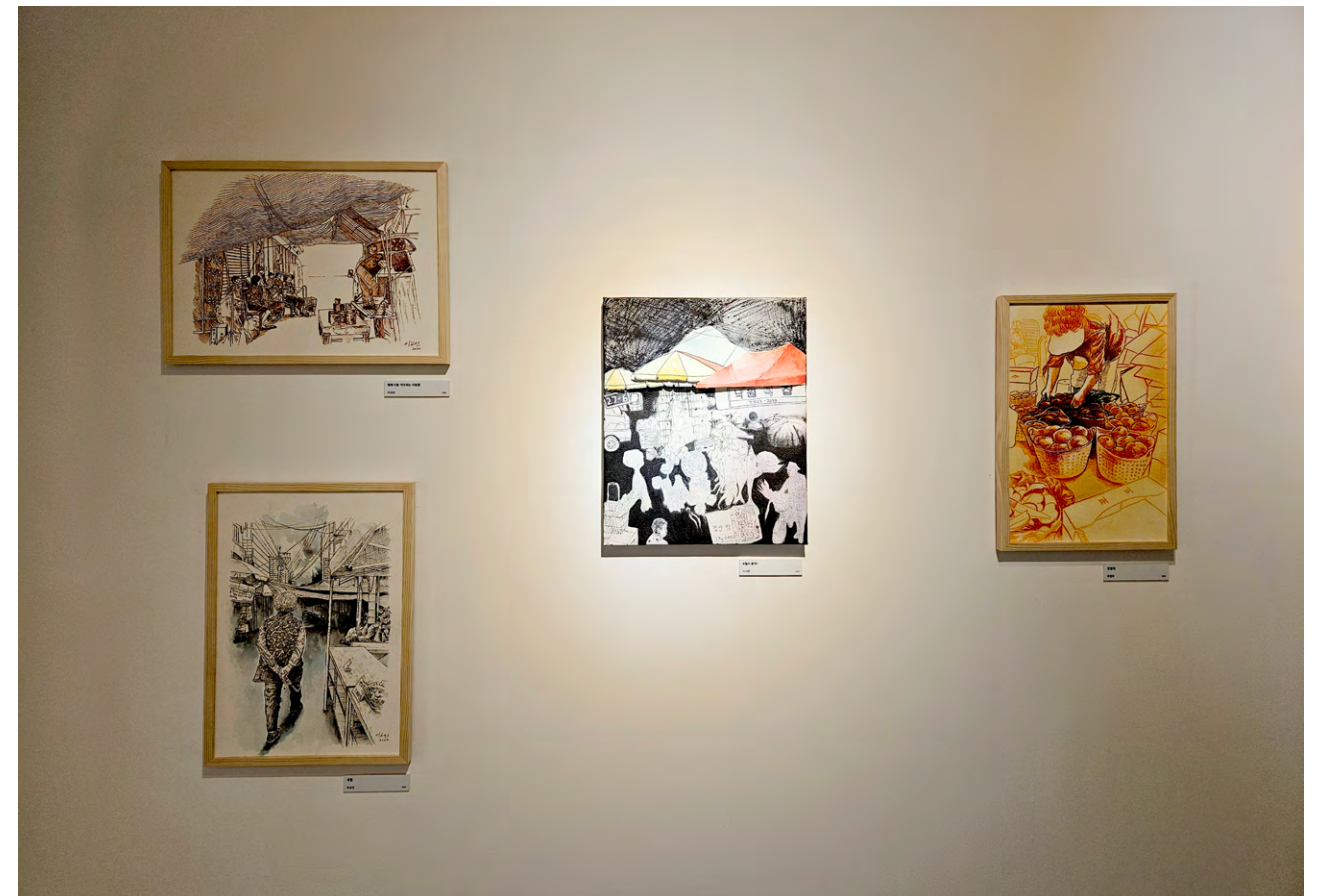
지도: 심웅택 교수

유성 오일장의 현장감을 충남대학교 회화과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한 번씩은 보았을만한 풍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각자 인상 깊은 장면들을 포착하였다. 누군가는 시장 먼 곳의 풍경을, 누군가는 시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여 유성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였다.





유성시영 풍경
김홍도화



2023 지역리서치프로젝트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결과보고전

2023 지역리서치 결과보고전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2023. 12. 21.(목) ~ 2024. 1. 21.(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개막식 및 콜로키움: 2023. 12. 21.(목) 15:00 ~ 17:00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전시서문

대전문화재단 전통진흥팀 이난숙

대전광역시 도시지역 프로젝트 '지역리서치'는 재개발로 사라질 지역에 대한 건축, 역사, 민속(구술채록) 조사 기록을 남기고, 예술가의 시선을 다양한 매체에 표현함에 따라 재개발지역에 대한 예술적 접근으로 시·청각적 기억을 남기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장대B지구, 유성시장 일원을 기록하였다. 과거부터 물건을 사고파는 상설·비상설시장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라, 장대(場垓)로 불렸다. 1970년대 유성시범상가가 조성되고, 2000년대 중반 유성장옥을 건축하는 등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2023년 현재 재개발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예전에 비해 유성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줄었지만, 유성시장은 물건을 사고,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었으며, 또한 오일장은 누군가에게는 바쁜 일상 속의 교통체증을 안긴 곳이면서, 누군가에게는 가족들과 장을 보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며,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공간이기도 했다.

너무 평범한 기록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재개발이 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될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기에 지나고 나면 아쉬울 풍경을 담아 이따금 그 동네가 그리워질 때쯤에 오래된 앨범처럼 꺼내어 볼 수 있는 기록이 되길 바란다.



콜로키움1. 건축 조사 결과 발표(김병윤, (주)세움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콜로키움2. 민속 조사 연구 결과 발표(박종익, 기호문화연구소)



콜로키움3. 역사 연구 결과 발표(이성우, 충남대학교)



참여자작가 소감발표(심웅택, 충남대학교)



참여자작가 소감발표(시모코가와 쓰요시)



참여작가 소감발표(박정선)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부록

- 1. 유성 관련 고지도 및 구 지형도
- 2. 유성오일장 풍경 및 물목 사진

1.
유성 관련 고지도 및
구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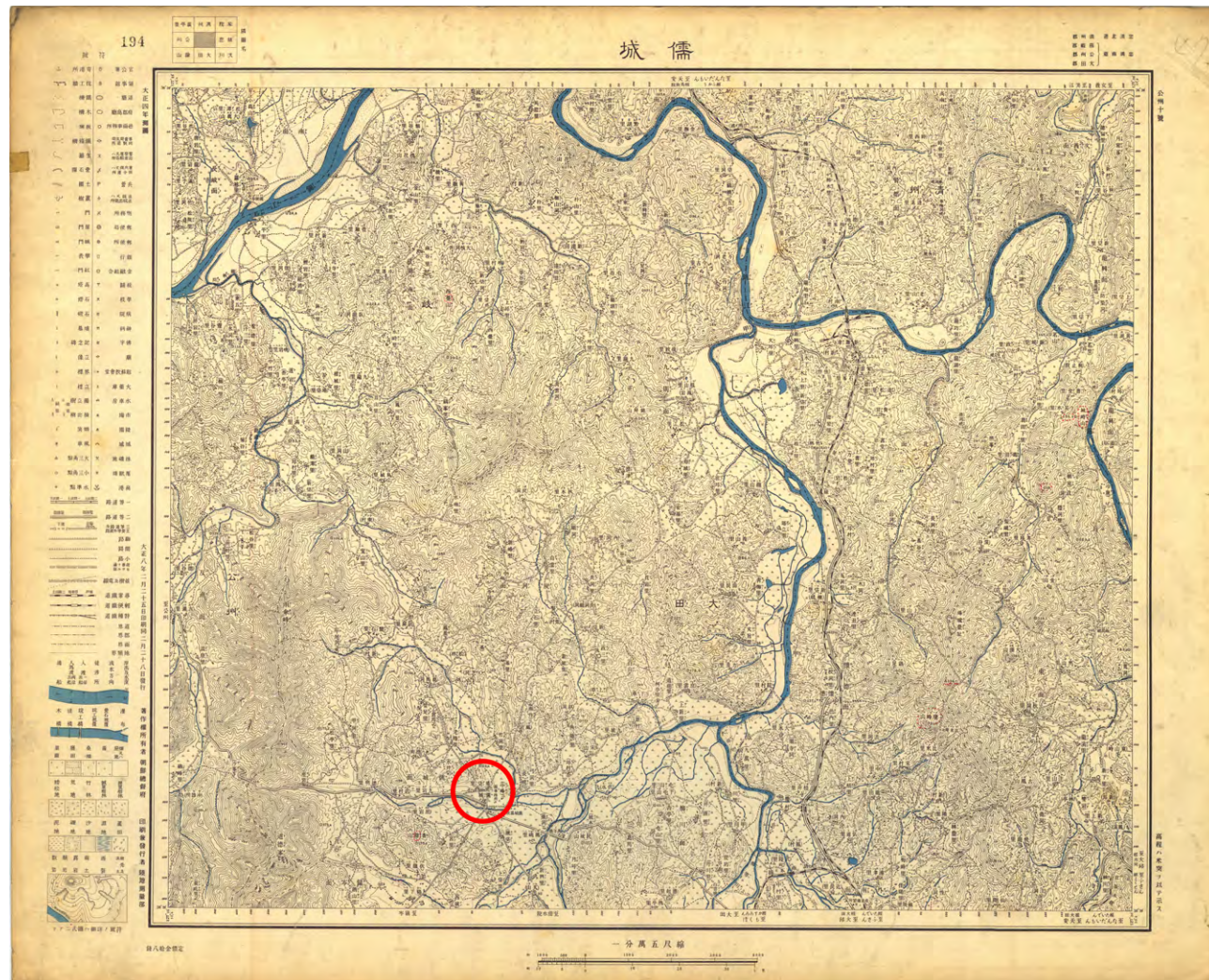
1973년 항공사진



1985년 항공사진



1991년 항공사진



1919년 구지도



2.
유성오일장 풍경 및
물품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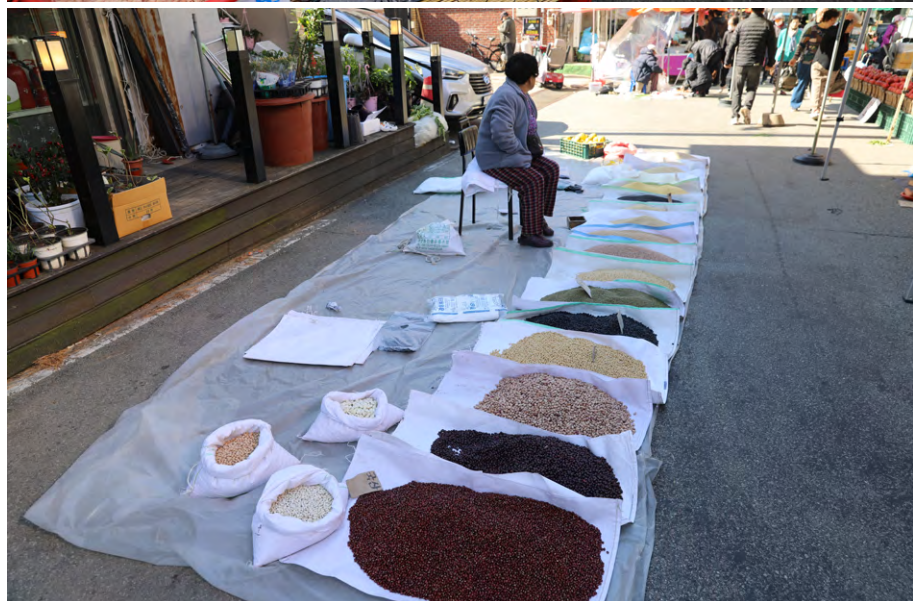


[illegible]

















유성시장, 잊혀질 지역에 대한 기록

총괄

대전문화재단

기획·운영

김경완 전통진흥팀 팀장

이난숙 전통진흥팀 차장

김가연 전통진흥팀 주임

추진위원

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

서은미 사진작가, 아키비스트

이의중 건축재생공방 대표

최호진 지음건축도시연구소 소장

황민혜 중앙문화재돌봄센터 팀장

연구조사

(주)세움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

김병윤 대전대학교 교수

이재용 (주)세움건축종합건축사 대표

이희준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장재훈 대전대학교 강사

장희진 (주)세움건축종합건축사 실장

김민수 (주)세움건축종합건축사 차장

박단비 (주)세움건축종합건축사 주임

박재호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장예나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남가을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최민혁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역사

이성우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백미선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사진영상

송덕호 영상제작소 시점 대표

윤희진 영상제작소 시점

구술채록

(사)기호문화연구소

박종익 책임연구원

예술활동 참여작가

박정선 작가

시모코가와 쓰요시 작가

심윙택 충남대학교 교수

협업

곽민주 충남대학교 회화과

김고운 충남대학교 회화과

김혜은 충남대학교 회화과

송나연 충남대학교 회화과

안수인 충남대학교 회화과

윤 준 충남대학교 회화과

이교선 충남대학교 회화과

이시연 충남대학교 회화과

전서현 충남대학교 회화과

최희선 충남대학교 회화과

주최

대전광역시

주관

(재)대전문화재단

협력

장대B구역재개발사업조합

전시디자인

트리플디

결과자료집

디자인에세이

발행인 백춘희

발행일 2023. 12.

발행처 대전문화재단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042-480-1000